



서울大學生同志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제204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3월 1일 월간

[1]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暎宰

發行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支票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우리는 먼저 신입회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들의 졸업을 축하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축하의 말과 더불어 이 기회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동문 모두의 뼈아픈 自省과 새로운 다짐을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나라는 우리 서울大 동문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신입회원까지 합해 꼭 21만의 서울大 동문들이 정부, 국회, 정당, 법조, 재계, 기업체, 학계, 언론

계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 군정의 암흑시대에 이 나라의 민주정치가 파행의 길을 걷게 된 것도, 한편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것도, 나이가서는 앞으로 「세계화」가 잘 되고 못되고도, 모두 우리 서울大人

신입회원에의 기대와 다짐

에 달려 있다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지난 功過와 榮辱에 대해서 냉엄한 판별과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함께 있어야 할 줄 안다.

이것은 굳이 過去之事를 들추어내 平地風波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다. 신입회원을 맞아 서울大人의 이 나라 역사에 미치는 막중한 소명과 견인차적인

책임의식을 보다 判明하게 일깨워 줌으로써 스스로의 굳건한 다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오늘날 우리 문민정부는 군·정치개혁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부동산 실명제등 획기적인 작업을 많이 했다. 하지만 당장 6월의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국안정 문제, 민생지안 문제, 또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등 아직은 미진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들이 모두 우리 서울大人의 뜻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흔히 우리 서울大人은 이른바 優等生의 엘리트 의식을 자만한 나머지 화합과 단결력이 모자라고, 독창적이고 개척자적인 추진력이 희박하다고 自評하기도 한다. 이 苦痛을 良藥으로 겸허히 받아 들여 21세기의 견인차로서 서울大人의 소임을 다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동문들간의 화합과 단결, 우리의 母胎인 모교에의 기여 또한 소중하고 뜻있는 일이란 것을 느낄 때가 되었다. 동창회의 활성화에도 신입회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根)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榮國, 金哲洙, 孫一根, 崔青林, 朴應七, 金昌悅, 朴世熙, 李東和, 李炯均, 宋鎮赫, 李年憲, 丘月煥, 洪性萬, 朴紀正, 李成俊, 吳效鎮, 安炳燦
편집주간: 李世震
편집장: 嚴海銓
기자: 安興燮, 金志妍, 金愛泳

회장 졸업 축사

존경하는 金鍾云 총장! 교수 및 교직원 여러분! 학부모 형제 자매를 비롯한 내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학창을 떠나는 사랑하는 동창생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음을 충실히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 있기를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학창생활을 마치고 冠岳의 품을 떠나는 여러분 앞에는 21세기가 눈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전세계의 지성들이 한결같이 海闊無底의 항해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투명한 세기라는 뜻이겠지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본보기」가 없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냉전시대에는 동서 양진영이 서로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었던 슬로건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편한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단순한 패턴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란 어떤 것일까요?

「남과 다른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한 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치의 주축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들로부터 배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자기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달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거의 문제 삼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제 학창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공업사회에서는 돌고 도는 사회의 한모퉁이에서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 학과중심의 공부 잘하는 인간을 대량생산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네 경제를 일으켰고, 고도성장을 지탱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톱니바퀴 인간은 점차 필요없게 되어가고, 컴퓨터나 로봇에게 줄 수 있는 소프트를 창조하는 인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보 하이웨이가 가정에도 기업에도 또 외국의 어느 누구와도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Office Work의 태반이 필요없게 될 것이고, 중간관리직이라는 애매한 직업도 없어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 개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참다운 의미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이 존중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一見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정보하이웨이가 세계를 연결하는 시대가 되고, 문화가 동질화되어가면 갈수록 민족마다 민족나름의 개성을 살린 전통문화

가 소중해지고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Key-word가 되는 세계화, 국제화란, 결코 남이 갔던 길, 남이 하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조하는 일이며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바로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길이며, 세계 무대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또 둘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 어떤 인격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20세기는 격동의 세기였습니다. 혁명과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고 피 흘리고 사납게 살아오면서 바로 인간 그 자체에 대한洞察—어느 누구나 인간이면 착한 마음씨를 갖고 태어난다는 그 본바탕을 잊어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쓰는 말은 사나워지고 사람이 사람을 좀처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잊어버렸던 날말들을 찾아냅시다. 고상한 말씨, 점잖은 행동, 예의범절, 너그러움—이런 것들이야말로 평소 우리 겨레의 것이고 선비의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선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동문들이야말로, 선비의 정신과 체통을 실려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동문들의 수, 20만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국내 요처에서 각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5대양 6대주에 동문들의 발자국이 역연합니다.

내년은 모교 창립 50돐이 되는 해입니다.

모교에선 최근 2020년의 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민족의 대학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학으로 융비하기 위한 야심적인 청사진입니다. 모교를 새 시대의 국제수준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끌어 올리는 사업은 학교당국이나 재학생만의 일이 아닙니다. 동문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 총동창회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서 모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혜와 힘을 모아 갑시다.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임을 다짐합시다.

모교의 창학정신을 상기합시다.

「眞理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시대의 물결에 뛰어듭시다. 모험과 위험이 따를 것이지만 여러분의 두뇌, 여러분을 길러낸 우리 서울대학교, 나가서는 우리 민족의 빼어난 자질과 강인한 근성이 여러분의 앞날을 성취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 패기 있는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海闊無底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창학정신은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발전해가는 우리들의 모교는 등불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전승을 거듭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1995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총장 졸업식사

만장하신 내외 귀빈, 하객 여러분, 그리고 교수 교직원 여러분, 오늘 서울대학교 제49회 학위수여식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대히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각고의 정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영예로운 학위를 취득한데 대하여 만강의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새 역사를 주도할 여러분의 앞날에 내내 성공과 보람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으로 부족한 교육여건에서 정성껏 가르치고, 지도하시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신 여러분 교수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학생들이 오늘의 영광을 얻기까지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여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시가 있게 한 공이 어찌 대학에 만 있겠습니까?

졸업생 여러분들을 낳아서 키워주시고 이날까지 뒷바라지 해오신 학부모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공로자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학부모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된 것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 대학에서 배출하는 졸업생들은 이 나라의 가장 미쁜 동량재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의 학위취득은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식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어 온 것만을 축하하는 자리일 수는 없습니다. 졸업은 하나의 종결이며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여러분의 대부분은 오늘로써 학교를 떠나서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대학교육을 종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된, 더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제도화한 긴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제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크고 굵은 획을 그는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가 예비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여러분이 가꾸고 준비해온 알찬 꿈을 펼치고 공들여 설계해 온 높은 인생의 목표를 실현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새 인생도정의 출발점에 선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지식인의 윤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그 말은 곧 우리 사회와 이웃을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야 할 남다른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련이나 난관에 부닥치면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위의 비합리적인 것이나 비효율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솔선하여 개선해야 할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안위나 이익

보다는 사회와 이웃의 복리를 우선하여 생각해야 하고, 그런 공동의 선을 위하여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남보다 탁월한 지능과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 의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특전을 덜 누렸던 사람들…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계층을 위해 자기희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 사명감이 행여 오만이나 독선으로 빛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뿐이라는 그릇된 환상을 빠지게 하고 그 결과 자기만이 옳다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숭고한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나중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되어서 실패한 많은 예를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창조적 사고를 할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 20~30년간 여러분의 선배들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의 덕분으로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학술등 제분야에서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앞으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따라 잡기 위해서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는 것이 었다면, 이제부터는 남을 앞지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후로도 계속 탐구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중의 대부분에게는 오늘로써 제도교육이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배우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훈련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장 종합적이며 난삽하고 심오한 연구대상인 인생과 맞부딪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가려면 지금까지 습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저에게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졸업식사에서의 사사로운 일에 언급하는 경솔이 허용된다면, 저 역시 서울대학교에서의 오랜 교편생활을 마무리하고 수삼일 뒤에는 정년퇴임으로 여러분들처럼 서울대를 「졸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같은 빛나는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한 學究로서는 있는 힘을 다한 보람찬 생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이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위취득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5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 총장 金鍾云

동창회 장학금 1억7천여만원 지급 작년보다 19명, 3천여만원 많아



金在淳회장이 장학금 전달후 축사를 하고 있다.
本會를 비롯한 각 단과대학 천5백원을 지급했으며, 前年同期對比 인원수는 19명이 늘었고 금액은 3천여만원이 증액됐다. 그 원인은 등록금 인상과 본회가 수혜자를 13명 증원해 그 혜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本會(재단법인 冠岳會·이사장 金在淳)는 지난달 20일 이번 장학금은 본회(재단법인 冠岳會)가 86명에게 8천3백90만7천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 각 단과대학(원)에서 총 2백23명에게 1억7천4백17만3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李世震사무처장의 사회로 신중진(人文大 4년)군등 학부생과 석·박사과정의 재학생 86명에게 8천3백90만7천원을 지급했다.

金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21세기를 준비하면서 깊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답해 조재열(工大박사과정)군은 참석학생들을 대표해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고 모교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仁子)=木蓮會장학생 1명: 74만5백원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楊銀淑)=5명: 4백11만7천원

▲미술대학동창회(회장 金瑞鳳)=1명: 60만원

▲법과대학동창회(회장 琴震鎬)=駱山獎學會 51명: 3천9백27만원

▲사범대학동창회(회장 閔丙晙)=15명: 6백만원

▲상과대학동창회(회장 張禮準)=向上獎學會 34명: 1천7백만원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金範來)=1명: 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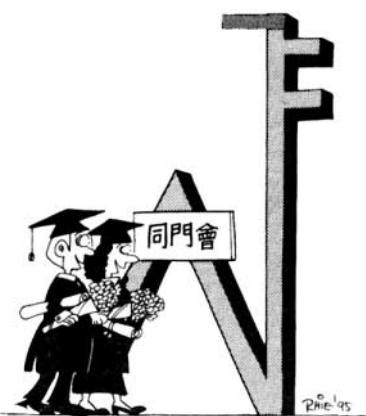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黃善瀨)=5명: 1백50만원

▲음악대학동창회(회장 李誠載)=1명: 1백13만3천5백원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春根)=4명: 5백10만6천5백원, 同門장학금 4명: 2백40만원

만 푸

李 元 馥



영원히 떠날 수 없는 門
—入門을 祝賀합니다.

▲대학원동창회(회장 李光魯)=4명: 4백40만원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李燦河)=1명: 89만7천5백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5명: 4백75만1천5백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朴亨錫)=5명: 1백65만원 (志)

커 버 스 토 리

조수미, 발전기금 위해 모교 오케스트라 협연

세계적인 콜로라투라로서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은 曺秀美(81년 音大入)동문과 모교교수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모교 오케스트라(지휘 林憲政)와의 협연이 오는 3월15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모교 음악대학(학장 徐友錫)이 주최하고 (주)서울방송과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金鍾云총장 석별만찬 마련



좌로부터 金相慶부회장 金商周부총장 權彝赫 前총장 金鍾云
총장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宋斗灝부회장

本會(회장 金在淳)는 2월28일자로 정년퇴임과 동시에 총장직을 이임하는 金鍾云총장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석별만찬모임을 지난달 20일 하얏트호텔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崔主鎬명예회장을 비롯해 鄭宗澤상임부회장, 徐廷和(국회의원), 李奭熙(대우일본재단회장)부회장등 회장단 10여명과 (재)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동창회장, 權彝赫前총장, 金商周부총장을 비롯한 모교 보직교수등 60여명이 참석했다.

金회장은 『동창회장을 1년하

면서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해어지게 되니 서운함을 감출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 큰 업적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金총장은 답사를 통해 『이런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그동안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힘쓴 덕에 모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모교를 비롯해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와 동문을 비롯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모금

조수미·서울大 오케스트라 협연

『신이 내린 목소리』라 극찬받고 있는 세계적 콜로라투라 조수미 동문과 모교교수·학생·졸업생들로 구성된 서울大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오는 3월15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이 공연은 모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지원하고 (주)서울방송 및 중앙일보사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모금에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실(전화: 880-7900, 877-4179)

콘서트 추진위원장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 在 淳



좌로부터 李春桂동국대교수 元暎玉국민대교수 玄己順초대회장 李仁子회장 安承堯모교학장
林元子모교교수 韓相淳건국대교수

가정대 신입회원 환영 「목련회 화보」제작·홈커밍행사 갖기로

가정대학동창회(木蓮會·회장 李仁子)는 지난달 22일 리베라호텔에서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환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李회장은 「3천여 동문을 대표해 신입회원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차돌같은 엘리트 의식보다는 따스함을 나누는 진정한 엘리트의식을 가진 선배가 되자」고 말했다.

참석 동문들은 지진으로 고생하는 재미동문들에게 1천불을 송금하는 등 그동안의 사업

과 회무등을 보고받고 회칙을 개정했으며 선후배 상견례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입회원중 권한길(의류학), 나선일(소비자아동학) 동문은 가정대학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남학생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으로 「여자선배들의 모임이라 미약할 줄 알았는데 모교지원등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적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희소가치만큼 책임감을 갖고 동창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내년 개교50주년을 기념해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회원들의 사진을 수집해 「목련회 화보」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40년대에 졸업한 선배부터 90년대에 졸업한 후배의 사진까지 망라하게 될 이 화보는 한국가정학사의 역사적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특별초대된 本會 李世震사무처장은 모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서울대총동창회·국민카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약대동창회 공로동문·우수졸업생 시상 신임회장에 李禮植동문 선출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黃善瀨)는 지난달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尹斗石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黃회장이 참석치 못했다」고 전하고 「회원들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했으니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바란다」는 黄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동창회발전과 회원들의 친목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宋昌鎮동문을 비롯한 5명의 동문에게 총동창회장상이 수여됐으며, 李炯鐵동문을 포함한 10명의 동문에게 약대동창회장상을 수여했다. 또한 장학금지급과 함께 95년도 우수졸업생인 都英美(제약학과), 李效貞(약학과)양에게 기념품과 상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동문 자녀가 모교에 입학하는 경사가 있어, 그 주인공인 金充京동문의 아들 형노(공대 컴퓨터공학과)군 등 4가족은 同會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받고 동문들의 큰 축하를 받았다.

한다는 뜻을 받아들여, 同會의 전임회장이자 자문위원으로 있는 李禮植동문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李禮植 前자문위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대동창회 함춘祺聖선발전 全承煥동문 아마4단에 등극

의과대학동창회(회장 姜信浩)는 지난달 12일 모교 제1교수회의실에서 제12회 친선바둑대회경 '95 含春棋聖 선발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아마추어 고수 회원 27명을 포함한 35명의 회원이 참가해 대국마다 일전을 펼쳤으며, 참관회원들의 진지하면서도 열띤 성원도 종

일 이어졌다.

李吉女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 모두가 선전해 좋은 기록을 내줄 것」을 당부했으며, 高在熙사범 주관으로 열린 「다음 한 수 알아맞추기」묘수풀이에서는 정답을 맞춘 기사에게 즉석 상품을 시상했다.

한편 이날의 주인공인 含春棋聖에는 全承煥동문이 올라

영원히 남을 李漢基교수의 선비정신

- 李相禹 서강대교수

이라 생각하시고 선생께서는 평생을 국제법을 불들고 후학을 가르치셨으며 특히 영토수호를 위한 국제법을 탐구하셔서 「韓國의 領土」라는 저서를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투쟁을 위한 우리족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다. 「국제법을 뒷받침하는 국제정치를 연구하라」고 나에게 귀한 책을 구해 주시면서 간곡하게 권하시던 선생님의 짚으셨을 때 모습이 선하다.



참선비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을 가르친다. 머릿속에 그리는 세계, 마음속에 간직한 뜻, 몸에 밴 자세를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그 꿈과 자세를 보고 배워 나간다.

箕堂 李漢基교수는 우리 시대까지 참선비의 전통을 이어주신 드문 분이셨다. 선생님을 교수로 모시고 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함께 토론을 벌였던 법대 졸업생들은 더 큰 복을 누린 셈이며, 1961년 대학원 입학부터 이번에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34년간 「조교」로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던 나로서는 가장 큰 복을 누렸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조선조 말기의 實踐儒學의 巨頭이신 高祖父 石田 李最善 선생의 맥을 이어 箕堂선생도 참선비의 뜻을 가꾸는데 80평 생을 바치셨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현실 세상을 바로 잡는 길을 열어간다는 선비정신의 실천을 위해 箕堂선생은 한평생 쉬지 않고 노력하셨다. 일본 第四高, 동경제국대학에 다니며 서양을 배우고 서양을 수용한 일본을 배우는데 짚은 시절을 보내시고, 귀국후 언론계에 잠시 머물다가 대학교수의 길에 들어서서 30년을 한결같이 수도자로서 자세의 흐트러짐없이 학문의 길, 선비의 길에 매진하셨다.

열강의 각축속에서 나라를 잃은 통분에서 국제정치를 바로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길만이 민족자주를 지키는 길

이제 선생님은 바로 迎瑞堂 앞마루에서 건너다 보이는 老松속에, 집안어른들 밭밭에 조용히 묻히셨다. 「기쁠때나 슬플때나 찾아온 나무밭... 迎瑞堂 앞」에 돌아가 묻히셨다. 그러나 선생님의 선비정신은 제자들의 마음에서 더욱 심심한 살구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 뜻에서 箕堂선생은 永生을 얻으셨다. 선생의 애국애족의 뜻과 선비정신은 제자들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조(1, 2급): 우승 全承煥, 준우승 陳泰薰, 3등 鄭相立동문

▲B조(3, 4급): 우승 朴性琪, 준우승 李夏吉, 3등 尹秀重동문

▲C조: 우승 李炳州동문 (志)

행대원27회 맹인소망원 방문 불우이웃에 쌀·라면 전달



좌로부터 千基鏞, 具本傑, 李文鏞동문, 金行福, 宋海俊, 趙錫俊동문, 李贊海소망원장.

행대원27동기회(회장 金棕鎬·前 해군참모총장)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실로암 맹인소망원을 방문, 쌀 5가마와 라면 1백상자를 전달했다.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趙錫俊(前行政대학원장)동문을 비롯 宋海俊(前전남경찰청장), 金行福(前재무부국장), 李文鏞(경남신문

사국장), 具本傑(前건설공체조합전무), 千基鏞(前경찰청형사국장)동문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법대19회, 동문자녀 장학금 수여



오는 5월에 열릴 졸업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

법대19동기회(회장 崔基永)는 2월23일 롯데호텔에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李千洙(교

육부 차관), 鄭鎮龍(정무제1장관실 정무실장), 李泰烈(건설교통부 신공항 기획단장), 金均(駐시애를총영사), 金德永(前총북지사), 崔基永(정선 대

표이사), 明浩根(쌍용투자증권 사장)동문들이 참석, 모교 법대에 합격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과 오는 5월에 개최될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崔회장은『각 분야에 주도적 위치에 있는 동문들이 사회 및 동창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며 참석한 동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법대26회 바둑대회

법대26동기회(회장 金洪柱)는 2월18일 서울기원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행해지는 이번 바둑대회에서는 10여명의 회원이 참석, 李仁濟동문(국회의원)이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 했다.

약대25회

약대25동기회(회장 李相明)는 2월23일 모교 호암관에서 동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沈昌求동문의 아들이 모교 약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약대34회

약대34동기회(회장 丁世榮)는 최근 삼정호텔에서 회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鄭煥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졸업20주년을 대비, 장학기금을 모금하기로 전원 찬성, 참석자 전원이 10만원씩의 기금을 냈다.

의대4회

의대4동기회(회장 石東壽)는 졸업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기들의 글을 모아 「근우회」라는 문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동기들의 수필, 의학강좌등의 글들로 엮인 이번 문집은 멀리 미국에 있는 동기들에게 까지 배포, 동기애를 돈독히 했다.

耳順테니스회

耳順테니스회(회장 李禮植)는 오는 3월19일 오전 9시30분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신입회원모집을 위한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체력단련은 물론 회원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는 이 모임은 3월 마지막 일요일과 6월6일, 10월3일에 정기 대회를 갖는다.

동회는 만 60세 이상의 테

니스를 좋아하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락처 李海遠간사·전화 752-0558)

상대3·6회

상대 3·6동기회(회장 洪性澈)는 지난달 15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同會는 8·15 해방직후 학교편제가 바뀌면서 1946년 함께 입학한 고등상업 전문부 3회와 서울상대 학부6회 동기들로 구성됐다.

이번 모임에는 趙淳(前부총리), 柳致松(현정회고문), 裴奎聖(前농수산차관보)동문등 70여명이 참석, 지난해 3월에 선임된 임원을 소개했다.

법대16회

법대16동기회(회장 韓榮洙)는 1월18일 국방회관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지난해 결산보고 및 회지배포, 경품추첨등이 있었다. 추후 사업계획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모교 음대 학생들의 연주속에서 친목을 다졌다.

경대원 석사6회

경대원 석사6동기회(회장 姜熙慶)은 오는 3월 11일 오후4시에 신사동에 위치한 만리장성 2층 장미홀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는 崔景秀동문을 비롯 회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自社의 사업소개」라는 제목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泳)

95년도

「定期總會」개최 안내

同窓會 1995年度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同門들의 많은

참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995년 3월 25일(土) 오후 2시
- 장소 : 라마다 르네상스호텔(3층)다이아몬드볼룸
- 안전 : ①94년도 결산승인
②기타

- 회비 : 2만원整
- 기타 : ①폐회후 부폐
②기념품 추첨 행사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金在淳



서울대출신 안뽑기작전(?)

일본의 소니그룹 창립자이며 소니라는 그 이름을 전세계에 드높인 모리다아키오(盛田昭夫)씨의 유명한 저서로 「학력무용론」이 있다. 무에서 작은 기업을 일으켜 세계일류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의 입에서 「학력같은 거 필요없다」는 말이 나오다니 의외일 수밖에 없다. 우리 생각엔 대단한 두뇌들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머리를 쌩고 끙끙거린 끝에 신상품을 개발해서 턱턱 터뜨려가며, 소니를 오늘날 이처럼 키웠을 것만 같은데, 이런 범인들의 범상한 생각이 여지 없이 빗나가고 있다.

모리다 회장은 보란듯이, 머리가 좋은 일류대 출신들이 아닌 범인들의 범상한 생각을 모아서 비범한 상품들을 개발한 비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말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도쿄대학이나 와세다대학이나 하는 학력을 전연 보지 않고 뽑아서, 트랜지스터·녹음기·워크맨·VCR·8mm비디오 카메라·미니디스크 같은 상품들을 새로 만들어내게 하고 있다.

일본의 민방을 비롯한 유수한 언론기관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방법을 근래들어 아주 많이 바꿨다. 어딜가나 시험을 잘치는 시험꾼, 곧 머리좋은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도쿄대 출신들은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지TV, NTV, TBS같은 유명한 민방들은, 우선 원서에 대학기재란을 없



吳效鎮 SBS편성이사

했거나, 있어도 마지막에나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필기 시험으로는 응시자의 절반정도만 뽑는다. 그리고 2~3년 정도 선배가 담당하는 면접에서 시작해서 10년정도의 선배, 데스크나 부장급, 국장급, 임원과 최고 경영자들이 담당

하는 면접·세미나·워크숍을 심도있게 거쳐 창의력·협동심·일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을 주로 본다. 이들 회사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나서, 10명 뽑으면 8~9명 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재를 건질 수 있었다

고 말한다. 곧, 머리만 좋고 다른 것이 떨어지는 시험꾼들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언론계에도, 자칫 머리만 좋고 창의력·협동심·열정이 부족한 사람을 뽑아 낭패볼 확률이 높은 기준 선발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그래서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덜해지고 면접이나 워크숍, 인턴근무의 성적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러다간 머지 않아 서울대 출신 떨어뜨리기 작전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불똥이 다른 그룹사같은 데 번지면 그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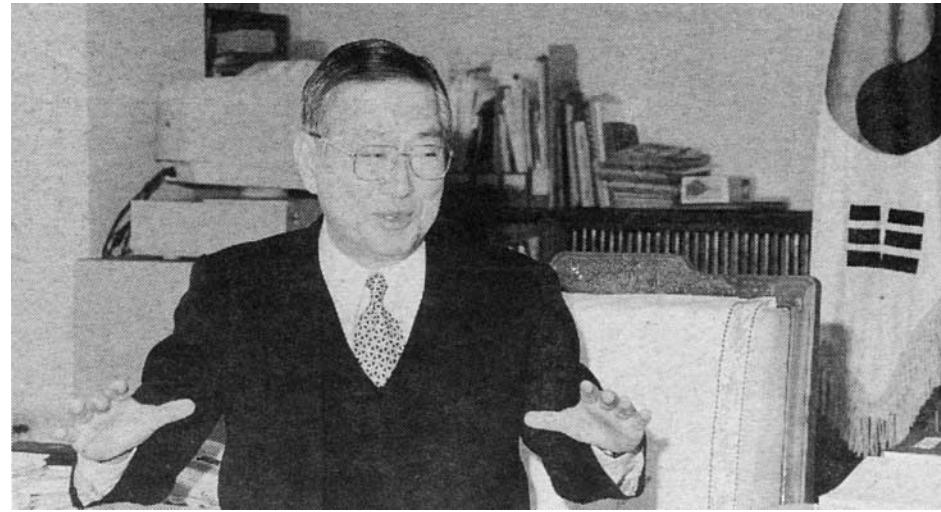
최근 법대·의대·약대·사대 등에 대한 대학교육발전계획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기회에 머리만 좋은 사람을 뽑아, 세상에서 기피하는 사람으로 가르칠 개연성이 있는, 지금의 입시·교육제도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 같다.

(본보 논설위원)



金鍾云총장 告別 인터뷰

2천년대 장기발전계획 수립 "제2캠퍼스 건립 못해 아쉬워"



『세계적 대학과 경쟁 평가력은 研究라는 요소입니다.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는 대학원이 그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鍾云총장은 지난달 18일 총장실에서 대학 발전계획 방향으로 추진했던 「대학원중심 대학」에 관한 얘기를 시작으로 본보와의 인터뷰를 풀어나갔다.

『총장께서는 관련학과 통합 및 재정적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람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보람은 국내외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수가 일심단결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意志를 결연히 함으로써 면학분위기가 날로 일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 열람실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이런 경향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생대의 이전을 완결하지 못했고 제2캠퍼스 문

제, 그린벨트법에 묶인 부지조달의 아쉬움, 사범대학 부속학교들의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등의 문제들은 지금 제2팽창기라 할 만큼 활발한 시기에도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입니다.』

－근래 법대, 사대, 치대, 의대의 경우 학부제를 없앤다는 발표가 있어 해당대학 동문들의 비판적 의견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2천년대 미래상의 대학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질높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가 전체적으로 참여가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총장의 여러가지 역할중 요즘은 총장의 경영자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립대와 비교해서 국립 서울대 총장의 비감직한 역할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영자적 역할이 강조돼 예산의 배당 처리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부각되는 실정인데, 기업 인처럼 지나친 상업주의는 곤

란하다고 봅니다. 대학의 총장은 학문적 성취도가 있어야 하며 종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총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며 미뤄왔던 공부, 자료가 매우 생소해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는 일이 급하지만, 지난 4년동안 휴가다운 휴기를 단 한번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술까 합니다.』

－본회와 21만 동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프랑스는 국립대학들로 대학 출신자들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뿐 동창의식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통이 강한 사립대가 중심이 돼 모교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60代동문과 이제 막 졸업한 20代 동문간에는 한가지를 빼고는 사실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한가지가 바로 모교입니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그 발전은 곧 모교의 발전과 연결돼야 할 것입니다.』

〈嚴〉



300년 전통의 전형적 귀족학교

예일대학

인문과학분야에 독보적 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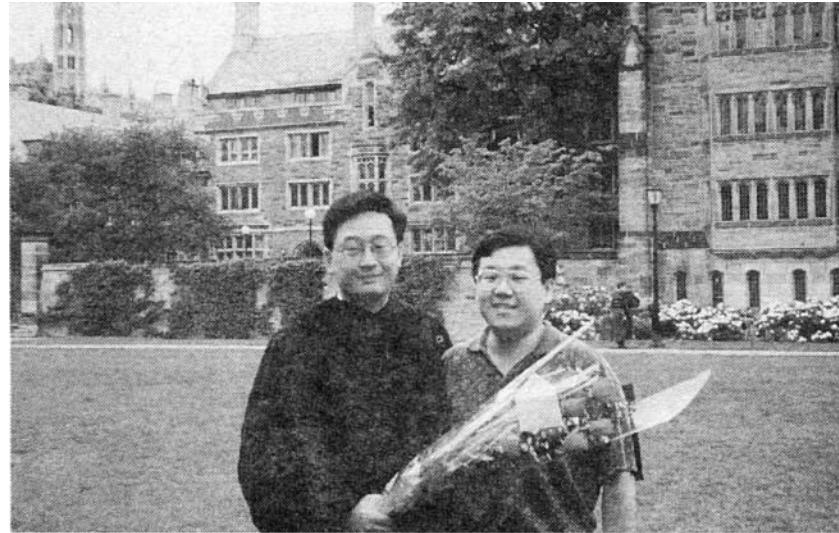
170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예일대는 대학설립에 기여한 웨일즈 출신의 Elihu Yale을 기념하여 1718년 Yale College로 명명되었고, 1887년 정식으로 Yale University로 불리우게 되었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예일대는 하바드보다 규모는 작다. 그러나 연례적인 행사의 하나인 예일-하바드 정기전을 참관하면 가히 양 대학의 라이벌관계를 실감할 수 있다. 청교도에 의해 설립된 전통에 있어서는 양 대학이 공통점이 있지만, 하바드대가 실용주의적 학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학의 규모를 확대시킨 반면에 예일대는 아직까지 공과대학이 거의 전무하고, 문학, 사학, 신학 등 인문과학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의 규모도 소수 정예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의 규모도 명문대학의 명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일대는 종종 미국의 상류층의 자녀들이 사립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입학하는 전형적인 귀족학교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특히 12개의 College로 운영되는 학부는 학생들이 입학시 자신의 전공보다는 어떤 College에 입학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College에 소속된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와 지도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다. 또한 복수전공도 허용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고르게 선택할 수 있다.

예일대의 학부과정이 어떤 전공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준비과정이라면 대학원과정은 출발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전공에 매달리는 전문인력의 양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과정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어떤 학과는 입학시지도교수까지 결정되기도 한다. 자신



필자의 졸업식(후배 백영재군과 함께)날 Cross-campus교정 앞에서

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권리라는 학생에게 주어지지만 지도교수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종세식 도제제도를 능가하는 교수 대 학생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교수의 대학간 이동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논문지도교수가 대학을 옮기면 논문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도교수를 따라 이사를 해야 한다.

필자가 박사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첨단의 학문을 접할 수 있을 때였다.

학문의 시각차이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면서도 한 치의 학문적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토론의 장이 학문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생동감있는 현장이었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미나에 초청된 교수들이 대부분 나이 40세를 전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대학의 교수임용이 우리와는 달리 정교수가 되기까지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장교수들은 대학원생 이상으로 밟샘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하고, 이로 인해 교

수의 이혼율이 매우 높은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계약교수의 고용 불안정에서 해방되어 정교수가 되었을 때 이들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자랑할만한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게 된다.

예일대가 자랑할만한 것은 미술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화가 소장된 미술관, 매년 국제 테니스경기를 유치 할만큼 홀륭한 시설을 갖춘 운동경기장, 한 때 세계 100대 골프코스에 꼽혔다는 대학소유의 골프장, 전세계의 가장 오래된 고서들을 모아 원쪽에도 견딜수 있도록 특수하게 건축된 도서관, 세계 최고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자랑스럽게 공연하는 음악홀, 아름다운 건축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수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중세풍의 건물과 교정, 부시, 클린턴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 정치의 중요인물들을 배출하는 대학이라는 명성이외에 미국내에서 가장 홀륭한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과학의 시대에 공학보다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소 순수과학을 고집하는 자존심에서 학교의 명성이 연연히 어여져 오고 있다.

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일대의 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동창회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총장의 역할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발전계획을 세일즈하고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일이다. 세계적인 학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대우가 따라야 하는 미국 명문대의 경우 대학재정이 튼튼해야 대학의 발전이 있다는 논리는 그대로 성립한다.

동창회는 전세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남색의 불독을 상징으로 하는 예일대에 대한 자부심의 대가로 자발적인 참여속에 동창들로부터 출연되는 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예일클럽은 예일대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예일대에 임시 적을 두었던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일대에 한국 학파가 설립되도록 중장기적 기금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비롯하여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예일대 출신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한·미 외교에 있어서도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월 정기모임과 송년파티를 통해 동창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李洪九총리(정치학 박사)가 동창회 전임회장을 맡으셨고, 현재는 朴晟容 금호그룹회장(경제학 박사)이 동창회장직을 맡아 수고하고 계시다.

예일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주요인사로는 金鍾云서울대총장, 鄭鍾旭前대통령 외교·안보수석, 李鍾律국회사무총장, 金基桓무역진흥공사 이사장, 辛永茂, 申熙澤, 趙大衍 변호사, 그리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강단에 있는 분으로 李仁碩(수학), 諸元鎬(물리학), 姜錫眞(수학), 朴埈用(경제학), 申旭喜(정치학) 교수등이 있다.

〈王允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동문에 고함

醫學의 세계화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으로서 임해온 서울대학교의 지난 여정은 우리 민족의 애환의 역사,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의학, 문화계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문들을 생각할 때마다 서울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위상에 대해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화가 우리의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분야별로 세계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각종 전략들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국가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고, 실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학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세기라는 짧은 근대의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세계 최첨단이라 불리우는 양전자방출장치(PET)가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설치되어 환자진료에 쓰이고 있고, 과거 첨단기기로 알려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등은 이미 개원기에까지 설치될 정도로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만 해도 심장, 간장, 이식 등 장기이식과 뇌세포이식수술 등 첨단 수술에서부터 각종 특수클리닉에 이르기까지 진료면에서의 수준은 이미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듯 서울대병원이 국가 의학을 주도하고, 급속한 의학발전을 이룩한

이면에는 서울대학교라는 울타리가 언제나 병원을 감싸주었고, 선배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임상의학연구소와 국내 최초의 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착공에 들어가 97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인 업적은 제대로 된 연구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학분야에서의 진료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 하지만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실정이다.

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연구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대병원의 종합의학연구소 건립은 때늦은 감이

연구에 눈을 돌려 세계화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것만해도 큰 발전이라고 보면,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서울대학교의 저력이 가미된다면 세계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단 의학분야만 언급을 하였으나 더 나아가 과학분야에서의 진정한 평가는 연구업적으로 가늠된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연구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시화되는 연구에만 투자하여 결과를 논하는 속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업을 이어받는 후학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깊게 생각하면서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무엇보다도 선결과제이다.

과학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젊은이들과 오늘도 연구실 한켠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학자들에게 새봄의 훈훈함을 전해본다.



韓萬基 서울대병원장



명예교수칼럼

農心의 텃밭기꾸기



柳達永 명예교수

나는 지난 1936년 서울대 농대 전신인 수원고등농립학교를 졸업한 뒤 10년만인 46년에 모교에 부임하여 30년간 근속하다가 76년 정년퇴임하였다.

농과대학에 봉직하는 동안 나는 농민의 의식개혁과 농사짓는 마음(農心)가 꾸기에 힘써온 결과 농업기술자협회, 유기농업협회, 농수산물유통연구원, 무궁화연구회, 잔디연구협의회 등 많은 농업단체도 창립하고 육성해왔다.

또한 지난 51년 1·4후퇴 때 내가 대구의 피난 생활중에 집필한 「새 역사를 위하여」가 장기 베스트셀러로 20여 회의 재판을 거듭하였는데 그 인세로 수원 근교의 산비탈을 30여년간 개간하여 원예와 낙농을 경영하였다. 직접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여 농민들에게 시범을 보여야겠다는 일념에서였다.

바로 그 농장이 몇해 전에 안산 신갈간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편입되어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이 특별보너스를 정신교육을 통한 성실한 생활문화 창달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91년에 星泉文化財團을 창설했다.

지도층을 각성시키는 방도를 이것 저것 생각하다가 여러 친구들과 상의하여 재단에 생활문화아카데미를 부설하고 「東西人文古典講座」, 「現代生活文化講座」, 「未來志向文化講座」를 개설했다.

좋은 품종의 과수 품종들은 예외없이 모두 야생나무 대목에 접목한 것들이다. 인간도 올바르게 자라 값진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야생대목에 해당하는 고전에 정신을 접목해야 할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인간이 성장하는데는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동서고금의 큰 스승을 고전에서 발견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다. 고전은 인간의 고귀한 경험이 응축되어 있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국한된 낡은 서적이 아니라 「영원한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 고전을 공부하되 문화적 편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고전 12과목을 뽑아 「동서인문고전강좌」를 편성했다. 삼국유사 등 국학고전과 儒·佛·仙의 대표적 경전, 그리고 플라톤을 비롯한 서양고전 외에 인도 8억 인구의 대표적 고전인 바가바드 기타와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님 회교 경전 코란까지도 공부하는 정신 연단의 도장을 마련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하는데는 반드시 튼튼한 정신의 뿌리와 더불어 확고한 신념의 지향점이 필요하다. 태양과 같은 밝은 이념은 빠른 속도로 변천하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지향의 길을 명확히 밝혀주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고전공부와 함께 미래학 공부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20과목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미래지향문화강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현재 이슈가 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 형식으로 「현대 생활문화강좌」도 열고 있다.

나의 좌우명은 好學爲公이다. 공자의 好學精神과 예수와 부처의 普施, 愛憐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뜻이다. 나는 이 정신의 실천을 위해 재단을 세웠지만 아직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나의 이 소망은 어린 솔모종이 구름을 이루만지려는 마음(稚松拂雲心)처럼 소박하고도 높은 것이다. 한평생을 몸바쳐온 農心교육을 都心의 작은 텃밭에도 실천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서울대 동문들도 많이 찾아와서 고전과 미래학공부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이 사업을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연락처: 성천문화재단 T.786-1754)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상

▲崔主鎬(39년 農大卒·우성그룹 회장·本會名譽會長)= 지난 달 21일 한미장학재단 학允洙 회장을

으로부터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朴順子(54년 工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지난해 공대 학술상을 수상했다.

▲李在坤(55년 工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 지난해 공대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林嬉燮(59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本會理事)= 저서 「한국의 사회변화와 가치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6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수상.

▲趙炳祐(64년 工大卒·유풍실업 대표·本會理事)= 지난해 공대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裴洵勳(66년 工大卒·대우전자사장·本會理事)= 홍콩의 유력전자 월간지인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아시아」 94년 송년호에 「아시아의 10대 전자인」으로 선정됐다.

▲李忠九(67년 工大卒·현대자동차부사장)= 지난해 94년 공대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李珉柱(80년 美大卒·화가)

= 3월 제1회 한국미술 신예작가상 최우작가상 수상, 日本에서 열린 제16회 국제 扇面展에서는 일본민족의상 문화보급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행사·출간

▲徐燦玗(46년 法大卒·대한불교진흥회이사장)= 2월 8일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백제미술(무녕왕릉 출토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47회 다보문화강좌를 개최.

▲趙永植(50년 法大卒·경희학원장·本會理事)= 2월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오는 5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 대표자회의」추진준비회의를 개최.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학총장·本會副會長)= 최근 인제대 본관 회의실에서 대학생, 고교생 등 76명에게 仁堂장학금을 수여했다.

▲車仁錫(52년 文理大卒·유네스코한국委사무총장·本會理事)= 3월 제1회 한국미술 신예작가상 최우작가상 수상, 日本에서 열린 제16회 국제 扇面展에서는 일본민족의상 문화보급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硏究所·本會理事)= 1월 27일 하얏트호텔에서 「세계화 외교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朴永淑(55년 齒大卒·을지병원치과과장·本會理事)=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에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옛 의상 및 보자기 전시회를 개최.

▲申榮均(55년 齒大卒·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本會副會長)= 지난 1월 25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

▲金鎮佑(56년 法大卒·현법재판관·本會理事)= 지난

일 프레스센터에서 회갑기념논총 증정식을 가졌다.

▲金哲洙(56년 法大卒·모교교수·本報論說委員)= 지난달 24일 동송동 흥사단 강당에서 「한국법학교육 1백주년-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李載明(57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달 21일 교원단체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물 절약과 보전에 관한 「가뭄 심포지엄」을 개최.

▲姜日圭(57년 文理大卒·한국개발리스사장·本會理事)= 2월 24일 호텔롯데에서 同社창립 20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

▲柳赫仁(57년 文理大卒·한국종합유선방송위원장·本會理事)= 2월 9일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대

서양관에서 「韓·美친선전통음 약제」를 개최했다.

▲金昌達(57년 商大卒·종합기

술금융사장·本會理事)=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제5회 동북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李珉柱(80년 美大卒·화가)

= 3월 제1회 한국미술 신예작가상 최우작가상 수상, 日本에서 열린 제16회 국제 扇面展에서는 일본민족의상 문화보급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徐元宇(53년 法大卒·한국부동산법회장)= 지난달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에 따른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

▲李相敦(53년 醫大卒·중앙대

의대교수·本會理事)= 정년퇴임을 맞아 지난달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후학들로부터 「이상돈 교수 정년업적집」을 봉정받았다.

▲蘇鎮轍(53년 法大卒·원광대교수·本會理事)= 최근 古代韓·日관계연구 논총 「金石文으로 본

百濟武寧王의 世界-王의 世上은 大王의 世界-」라는 책을 출간.

▲鄭元植(54년 師大卒·前國무총리·本會副會長)= 최근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창립 20주

년 기념세미나에서 「21세기

한국의 과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

▲車仁錫(52년 文理大卒·유네

스코한국委사무총장·本會理事)= 프랑스 유네스코본부 철학국 주최로 열린 「철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참석.

▲金善弘(55년 工大卒·한국기계공업진

홍회장·本會副會長)= 여

의도 기계회관 회의실에서 95년도 제28회 정기총회 및 기계공제조합 제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硏究所·本會理事)= 1월 27일 하얏트호텔에서 「세계화 외교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朴永淑(55년 齒大卒·을지병

원치과과장·本會理事)=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에서 2월 28일

일부터 4월 30일까지 옛 의상 및 보자기 전시회를 개최.

▲申榮均(55년 齒大卒·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本會副會長)= 지난 1월 25일 롯데호텔 에메랄드

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

▲金鎮佑(56년 法大卒·현법재판

관·本會理事)= 지난

일 프레스센터에서 회갑기념논총 증정식을 가졌다.

▲金哲洙(56년 法大卒·모교교수·本報論說委員)= 지난달 24일 동송동 흥사단 강당에서 「한국법학교육 1백주년-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李載明(57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달 21일 교원단체총연합회 세미나실에서 물 절약과 보전에 관한 「가뭄 심포지엄」을 개최.

▲姜日圭(57년 文理大卒·한국개발리스사장·本會理事)= 2월 24일 호텔롯데에서 同社창립 20주년 기념리셉션을 개최.

▲柳赫仁(57년 文理大卒·한국종합유선방송위원장·本會理事)= 2월 9일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대

서양관에서 「韓·美친선전통음 약제」를 개최했다.

▲金昌達(57년 商大卒·종합기

술금융사장·本會理事)=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제5회 동북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했다.

▲張翼龍(58년 工大卒·西光회
장·本會副會長)= 지난 1
월 27일 중앙대학 교에 대
학발전기금으로 3
억원을 출연했다.

▲申鉉德(58년 法大卒·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교수·本會理事)=
최근 저서 「교양환경과학」(도서
출판 동화기술刊)을 출간했다.

▲金長淑(58년 藥大卒·정무2
장관·本會理事)= 2월 13일 외
교안보연구원에서 재외공관장
부인 및 외무부본부 간부부인을
대상으로 「세계화와 공직자 부
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

▲鄭根謨(59년 文理大卒·과기
처장관)= 1월 19일 모교 행정대학
원에서 「국가정책 과정 수
강생을 대상으로 「세계화를 위한 과학
기술정책방향」에 관해 특별강
연을 했다.

▲安明弼(59년 法大卒·내무부
민방위본부장·本會理事)= 지난
달 25일 동아대학교에서 「지
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행정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韓萬青(59년 醫大卒·서울대
병원장·本會理事)= 2월 2일 서
울대병원 양전자단층촬영기
(PET)센터에서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로트론」 가
동식 및 장비설명회를 개최.

▲朴載冕(60년 工大卒·현대건
설회장·本會理事)= 1월 18일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수영연맹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롯데
월드 백화점에서 체육인 1백여
명을 초청, 「수영인의 밤」행사
를 개최.

▲朴世直(60년 文理大卒·국회
의원·本會理事)= 지난 달
21, 22일에 호남
지역의
용수대책
을 수립
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韓完相(60년 文理大卒·한국
방송통신대 총장·本會理事)= 2월
23일 롯
데호텔에
서 동서
을 로타
리클럽 초청으로 「세계화와 시
민사회」란 주제로 강연했다.

▲尹享遠(60년 師大卒·한국교
총회장)= 2월 3일 코리아나호
텔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
총 대강당에서 전국 시·군·구
교련회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文哲漢(60년 商大卒·한국부
역회회장·本會理事)= 2월 16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WTO체
제와 신국제무역질서」라는 주
제로 韓·日·美 등의 학자들을
초청,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
다.

▲趙明翰(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이란 주제로 95년도 통
계심리학연구세미나를 2월 17,
18일 양일간 개최했다.

▲玄昭煥(61년 文理大卒·연합
통신사장·本會理事)= 지난 달
24일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
회를 갖고, 3월 1일 개국할
YTN의 편성운영 및 준비상황
을 설명.

▲元武鉉(61년 商大卒·효성물
산사장·本會理事)= 「浦鐵(天
津) 강재가공유한공사」의 철강
코일센터 착공식에 참석.

▲蔡載億(61년 法大卒·중소기
업진흥공
단이사장
·本會理
事)= 2월
14, 15일
양 일 간
부산·경
남지부를
방문, 이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간담회
를 개최.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
대 교수)=
= 2월 18
일부터 3
월 10일까
지 미국
메리랜드
의 타우
순주립대
학 ASIAN ARTS CENTER에
서 전람회를 개최한다.

▲韓昇洲(62년 文理大卒·前외
무장관)= 지난 달 21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韓和甲(63년 文理大卒·국회
의원·本會理事)= 2월 20일 중
앙대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지방
의회 최고지도과정 수강생들에
게 지방자치제에 관한 특강을
했다.

▲李炯九(63년 文理大卒·노동
부장관·本會理
事)= 2월
10일 롯
데호텔에
서 기업
체 최고
경영자등
2백여명을 대상으로 「95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특강.

▲朴在潤(63년 商大卒·통상산
업부장관·本會理
事)= 지난
달 23
일 팔레
스호텔에
서 한국
경영·기
에 참석, 「중소기업의 북한진
출방안」을 주제로 강연.

술지도사회가 주관하는 신년교
례회에 참석, 「통상산업 정책
의 방향」이란 주제로 특강.

▲鄭東潤(63년 法大卒·한국상
사법학회장·本會理事)= 2월 17
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회의실
에서 동계학술발표회 및 정기총
회를 개최.

▲崔勝夫(64년 文理大卒·노동
부차관·本會理事)= 지난 달 16
일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간호협회주최 제
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
석.

▲姜聲才(64년 法大卒·국회의
원·本會理事)= 지난 해 2월 저
서 「金泳三과 운명의 大權」 출
판수익금 5천만원을 월곡장학
회 기금으로 출연했다.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
제사회연
구원장·本會理
事)= 최근
사무
실을 종
로구 계
동 140-
2 현대사옥으로 이전.(T: 743-
0114)

▲朴英惠(65년 文理大卒·전문
직여성클럽한국연맹회장)= 지난
달 24일 조선호텔에서 「95BPW총
회식」을 개최.

▲尹成泰(65년 法大卒·의료보
험연합회장·本會理事)= 지난 달
23일 의보련에서 각계 인사 1
백여명을 초청, 의료보험 진료
비청구 및 심사와 지급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의료정보망 개
통식을 가졌다.

▲文憲相(65년 商大卒·수출입
은행장)= 1월 19일 호텔
신라에서
한국경영
연구원이
개최한
조찬모임
에 참석, 「중소기업의 북한진
출방안」을 주제로 강연.

자인포장개발원장)= 2월 16일
가리봉동에 있는 시범사업본부
에서 포장실험실 개소식을 가
졌다.

▲楊秀吉(67년 工大卒·교통개
발연구원장·本會理事)= 지난 달
23일 신라호텔에서 「교통부문
의 투자 및 운영 효율화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
촌진흥공사사장)= 지난 달 24
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지
방화시대의 농어촌 종합개발전
략」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李漢久(69년 商大卒·대우경
제연구소
장)= 2월
3일 롯데
호텔에서
한국인간
개발원
주최로
열린 인
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95
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금융시
장의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朴三圭(70년 行大卒·공업
진흥청장
·本會理
事)= 2월
9일 공업
진흥청
대강당에
서 국립
기술원
직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개청 22주년 기념식을 가
졌다.

▲安泳娜(84년 美大卒·화가)
= 지난 2
월 20일부
터 3월 2
일 까지
갤러리
「서호」에
서 개인
을 개최

했다.

▲李知禧(84년 美大卒·화가)
= 개인전 「생성의 연속체」 전이
2월 22일까지 갤러리 이콘에서
열렸다.

이동·선임

▲金興漢(49년 法大卒·변호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2대 소장으로 선임.

▲趙完圭(52년 文理大卒·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지난달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5차 정총에서 회장에 재추대됐다.

▲朴泰緒(53년 法大卒·제일탄소공업회사장·本會理事)=작년 12월 1일부터 회사명을 제일산업개발(주)로 변경했다.

▲吳張熙(56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월 23일 제44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선출됐다.

▲閔丙畯(56년 師大卒·두산그룹부회장·師大同窓會長)=지난달 10일 한국광고주협회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임됐다.

▲金庸來(57년 法大卒·서울올림픽기념사업회 회장)=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기념사업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權赫昇(57년 商大卒·한국일



장에 선임됐다.

▲金容振(57년 音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최근 한국작곡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朴宇熙(58년 商大卒·모교교수)=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 95년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全載嬉(58년 商大卒·前동우개발부사장·本會理事)=지난달 20일 대우투자자문대표이사사장에 선임됐다.

▲李秀洪(59년 文理大卒·한국문화협회장·本會理事)=지난달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崔德麟(59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기초과학지원센터 소장에 임명됐다.

▲李金器(59년 藥大卒·일동제약회장·本會理事)=지난달 21일 제4대 제약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보상임고문·本會理事)=지난달 9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崔慶碩(62년 商大卒·한국가스공사고문·本會理事)=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李元起(62년 醫大卒·단국의대교수·本會理事)=3월 1일 자로 단국의대 산부인과 주임교수에서 단

국의대 학장으로 발령.

▲李承宇(63년 工大卒·前쌍용건설부사장)=지난 1월 16일 (주)동방EUC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金文煥(68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지난달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연극학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출됐다.

▲趙壹鎬(70년 行大院卒·농립수산부기획관리실장·本會理事)=지난달 2일 농립수산부 차관보에 전보발령.

▲羅基山(71년 文理大卒·국방대학원교수)=제5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金基道(72년 新大院卒·국회의원·本會理事)=민주자유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에 임명, 사회분야의

정책입안·법안심의·예산사업·

조정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俞在賢(73년 工大卒·경제정의실천연합회연구소장)=지난달 18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사무총장으로 선출.

▲李壽晤(74년 農大卒·창원대학교·本會理事)=지난 1월 24일 창원대학교 제2대 직선총장에 선임.

▲裴玄鐸(74년 法大卒·前대구지법판사)=변호사 개업, 사무실·대구 수성구 범어2동 177-10 신아빌딩 3층(T: 053) 743-0851~2.

▲李建鎔(75년 醫大卒·안양중앙병원부인과과장)=지난 2월 3일 의료법인 안양중앙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俞炳勇(76년 人文大卒·강원대학교)=최근 학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

▲邊雨櫟(76년 環大院卒·고려대학교)=최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산림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됐다.

▲崔鍾澤(87년 人文大卒·모교박물관학예연구사)=최근 한국고대학회 간사에 선임.

▲申成燮(89년 行大院卒·서울

지검공판사무과장)=2월 6일 자로 대검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장으로 영전했다.

이 레이은 동문들의 동정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통보해주세요 됩니다. 단, 본회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703-5954~6
FAX) 703-0755

예식

* 안영환군(95년 人文大卒)·용명희양=3월 5일 11시.

* 허창영군(94년 醫大卒)·배현주양=3월 11일 11시.

* 이분열군(90년 自然大卒)·전경희양=3월 18일 14시.

* 조이현군(90년 人文大卒)·박주인양=3월 18일 15시 30분.

* 박상권군(94년 經大院卒)·박현미양=3월 19일 12시 30분.

* 조성계군(91년 農大卒)·지은영양=3월 19일 14시.

* 천보선군(88년 師大卒)·윤현희양(87년 師大卒)=3월 19일 15시 30분.

* 서광인군(85년 經營大卒)·진윤정양=3월 25일 12시 30분.

* 권형균군(93년 齒大卒)·송순희양=3월 25일 14시.

* 김인곤군(90년 經營大卒)·김종립양=3월 25일 15시 30분.

* 정윤섭군(94년 工大卒)·서주리양=3월 26일 12시 30분.

* 김선호군(87년 經營大卒)·이민정양=4월 1일 12시 30분.

* 유연식군(91년 自然大卒)·김민지양=4월 1일 14시.

* 박종덕군(93년 師大卒)·김덕선양=4월 1일 15시 30분.

* 진윤식군(92년 農大卒)·황은희양=4월 2일 12시 30분.

* 정흡천군(91년 法大卒)·김윤정양=4월 2일 14시.

* 권기철군(92년 保大院卒)·김영숙양=4월 2일 15시 30분.

* 김용득군(88년 社會大卒)·강수경양=4월 3일 13시.

(정리=金愛泳 기자)



여·야협상 명인 李漢東 국회부의장 선거법·WTO동의안등 솜씨 보여



『그 당시는 2학년만 되면 고시준비를 위해 입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험때 하산하곤 했기 때문에 「빨치산(파르티잔)」이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취임한 李漢東(58년 法大卒)동문이 취재기자를 맞으며 털어놓은 학창시절의 한 대목이다.

『그 때는 빈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명강의가 유난히 빛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증한 교수님은 학생들의 수업참석률을 높이고자 출석부에 사진을 붙여 일일이 확인하는 바람에 대리출석이 전혀 불가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황산덕 교수님의 법철학, 신태환 교수님의 화폐금융론, 이한기 교수님의 국제법 등은 특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議政생활중 느낀 보람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보람은 작년 집권당 원내총무로 여야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통과시킨 선거법과 WTO동의안 처리문제입니다. 전자는 여당의 권리를 모두 던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가히 혁명적인 법안이고, 후자는 이를 수용함으로 세계경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써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제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움은 지난 세월 동안 국회가 본모습인 민의의 전당으로 國利民福을 위한 일보다 때로는 권력투쟁, 갈등의 장소로 비춰진 것입니다』

—季부의장을 세칭 「一刀先生」이라 하는데…

『그것은 아마 내가 무심결에 한 「나쁜 것들은 단칼에…」라는 말을 기자들이 퍼뜨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비록 별호로 직접 쓰지는 않지만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집권당의 핵심당직인 당3 역을 비롯해 행정부 주요부서 장관을 역임하는 등 회려한 경력을 갖게 된 요체는…

『당3역 특히 원내총무는 3회, 국회운영위원장은 5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노리고 일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시에서 주어진 직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운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이나 포부는…

『전에 말했던 아쉬움을 떨치기 위해 동학의 「人乃天」처럼 국리를 하늘처럼 받들며, 국리

민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이제 나이도 나이인만큼 이제까지의 일을 바탕으로 깨끗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동창회와 21만 동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립대는 아무리 적은 수라도 그 유대가 대단해서 모두가 동지적 입장으로 지내는

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총동창회가 회보를 매개로 동문들간의 끈끈한 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嚴)



인본주의 건축가

金鎮愛

『건축의 매력은 재창조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통합해야 하죠. 여러분 두루 알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타임誌가 선정한 미래지도자 1백인 중 한 사람으로 작년까지 21세기 위원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짊어져야 했던 金鎮愛동문의 건축론이다.

78년 흥일점으로 건축학과를 졸업,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설은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로서의 일,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기회도 있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죠』

경쟁과 풍요가 교차하는 21세기, 그 시기를 준비하는 모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金동문은 벌써부터 脫20세기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다. 4층의 건물에 시어머니와 친척집, 그리고 사무실까지, 각각이 독립성



을 유지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른바 모듬살이의 한 형태로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이런 형태의 집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생길 것이라는 金동문의 예측.

『21세기 우리의 주택은 주방이 센터가 될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도 바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바뀌고, 인간관계 역시 바뀌겠죠. 형태는 다양해지고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전환, 전자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를 통한 생활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노인들을 위한 집부터 혼자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까지 다양한 패키지의 집들도 선보일 것

입니다. 이들 중 거주지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 자신의 개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디자인 공부가 어려서부터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金동문은 현재 일본에서 열릴 세계 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박람회는 처음 있는 것이라 저도 굉장히 기대되요. 그리고 곧 있으면 에세이집도 발간될 예정이구요. 일하는 삶, 프로로서의 가정생활, 남녀간의 갈등 등을 적었는데 남성들도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아름다운 건축만이 아닌 좋은 건축을 추구한다는 金鎮愛동문. 상대적인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좋은 집,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金동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좀더 나은 건축환경을 위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인 듯하다. (泳)



우리집 아이들



좌로부터 차녀(상아), 장녀(진아·고고미술사학과 2년), 필자, 부인, 장남(재범)

우리는 부녀 동창생

金星鉢(74년 歯大卒) 치과의원장

서울대 합격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여기 저기 연락하고 축하전화 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큰 딸이 벌써 2학년이 되었다.

생각해 보면 큰 애가 고3이던 갑술년 정월초에 서울대 캠퍼스를 아이들에게 구경시킨 일이 있다. 모교에 재직하는 친구와도 모처럼 만나 신년 인사도 나누고 그 친구의 안내로 넓은 서울대 캠퍼스를 두루 두루 돌아보며 아이들(2녀1남)에게 더 높은 理相과 포부를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덕담도 들려주었다. 서울대 정문에서 다시 이 문을 들어서리라 결심하는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우리 가족은 갑술년 정월 연휴를 보냈다.

그 때의 염원했던 일이 큰 딸아이의 합격으로 첫 결실을

맺어 우린 부녀간의 서울대 동문이 되었고 입학식에 참석을 했다. 내가 다니던 동숭동 캠퍼스(문리대 치의예과 67학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여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그 때 부산에서 혼자 서울에 와 입학식을 했고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얼마나 사치였던가. 그리고 그때, 부른게 아니라 들었던 교가는 최근 동창회에서 교가 카세트 테잎을 주기 전까지는 흥얼거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정확하게 금방 부른다.

우리가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갈 때면 의례껏 서울대 교가를 제창하곤 했는데 딸아이는 입학식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힘차고 자신있게 교가를 부를 수 있었음을 만족해 하고 즐거워

했다. 아빠가 서울대 동창이어서 가능한 일이었기에 더욱 신이 났으리라 짐작이 된다.

이제 딸아이는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신의 학업과 써를 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쌓고 서울대인으로서 결함이 없는 올 곳은 나무로 자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본다. 무척 대견스럽다.

모든 서울대생이 힘든 관문을 뚫고 들어 온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겠지만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또 우리 동문들도 2천년대 세계 20위 목표로 나아가는 학교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부산 가교사 시절 추억담아 총칼에도 굽하지 않던 기백

姜聲穆(56년 法大卒) 관악출판사 대표

지금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다. 「癸巳元旦」이라고 했으니, 계사년이면 서기로 1953년, 그러니까 43년전의 사진인 셈이다. 모두들, 입을 꽉 다문 굳은 표정들이 재미있다.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대학 1학년때 가까운 친구끼리 모여, 당시 부산시장이시던 鄭昌淳형의 부친에게 세배차 들렀다가 찍은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한 것은, 아직 6·25의 포성이 멎지 않았던 1952년의 이른 봄, 항도 부산의 九德山 기슭에 자리한 허름한 목조 가교사에서였다. FIAT JUSTITIA RUAT CAERUM, 교문 위 아치형 철망에 수놓여졌던 글귀다. 그 팬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살려라!」는 뜻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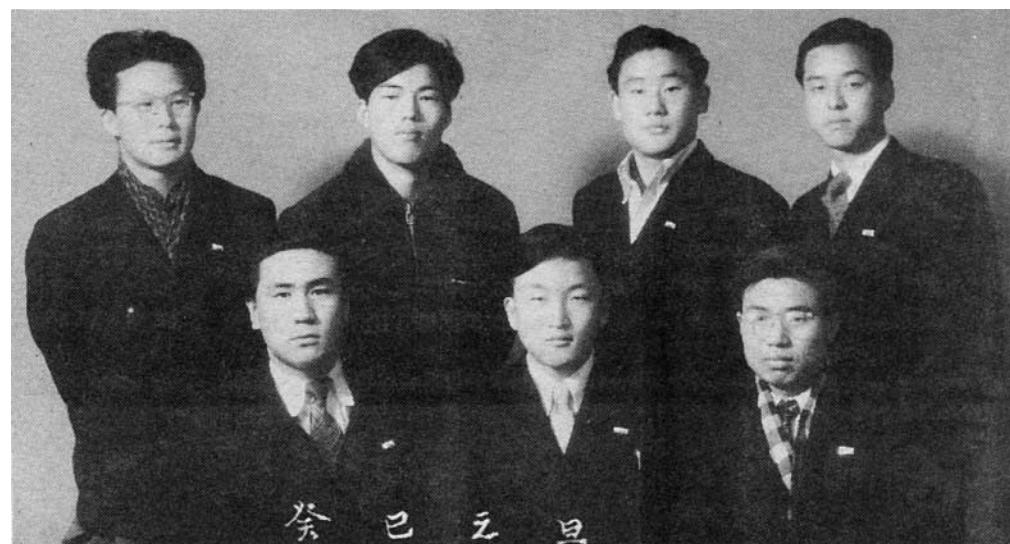
뒷날, 4·19, 5·16 그리고 12·12로 이어진 浮沈하는 역사 현장의 혐난한 격랑에 훨씬 면에서도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좌초하는 일 없이, 榮辱이 엉길리는 그 엄청난 세월의 무게를 그런대로 감당해 나왔던 것은, 이 교훈이 때로는 나침반으로, 때로는 등대로, 그리고 말없는 채찍질로, 우리를 격려

해 준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부산시절을 회상하면,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1학년 2학기 쯤으로 기억된다. 九德山 정상을 공략하라는 배속장교의 명을 받고, 전교생이 목총을 「앞에 총」자세로 정상을 향하여 기어오르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누구의 명령인지 모르지만 하산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모두들 얼싸구나 하고 신나게 내려오는데 중턱쯤 내려왔을 때, 널찍한 빙터에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거기서 즉석 야외학생총회가 열린 것이다. 학생운영위원회장인 韓基泰선배(3학년)의 입장연설, 高試준비에 열중해야 할 이 시간에 과격한 군사훈련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군사훈련은 이쯤에서 중단하자는 뜻의 열변이었다. 모두들 박수로 찬동하고선 하산, 가교사에 다시 모여 학생총회가 속개되었다.

일부 반대하는 자도 있고 하여, 한창 찬반토론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노기등등, 헐떡이며 달려온 서울대 배속장교 총단장인 강대령, 완전무장한 그의 손에는 일본도까지 쥐어져 있었다. 일본도를 교탁 위에 「탕」하고 놓더니 다짜고짜로 「이놈들, 지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水根동문, 필자, 吳淵根변호사, 金泰卿변호사, 金元圭동문,
沈載甲인하공전교수(재화시 서울대총학생운영위원장), 鄭昌淳한일리스회장.

금이 어느땐데 감히 이따위짓을 하는거야, 봉방 쏘아버릴 테다!』하면서, 정말 권총을 빼들고 휘둘러댔다. 마구 쏘아댈 것만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후에 침묵을 깨고 손을 번쩍들고 일어선 친구가 있었다. 초년병인 1학년 鄭萬榮형이었다. 너무 하지 않느냐, 아무리 戰時이라지만, 여긴 학교,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대들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강대령, 당장 나오라고 호통을 치더니, 『너 몇학년이야, 이 놈을 당장 일선에 배치시켜!』 옆에

서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던 법대 배속장교에게 명령, 그리고 일본도를 쏘 빼들더니 당장 무슨 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설쳐, 당자는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했다.

40여년이 지나 지금에 와선 추억담으로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때의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회상하면, 잊혀지지 않는 악몽처럼 소름이 끼친다. 하긴 전시하의 군사훈련을 거부했으니 당시로선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劉基天학장을 비롯,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신 金曾漢교수(학생과장), 黃山德교수(교무과장) 등 교수 여러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

로 잘 수습된 것으로 알지만, 주동자격인 학생운영위원장 韓基泰선배께선 한동안 상당한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추억의 앨범』은 동문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빛바랜 사진에 얹힌 에피소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주시면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편집부: 703-5954~6

어느 고혈압 환자의 한숨



李香蓮(73년 保大院卒) 경희대학교수

『××씨! 치료요법을 열심히 하지 않으셨군요. 음식주의, 운동, 약물섭취를 가르쳐 드렸을 텐데요. 잘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셨을텐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이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이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임상지도를 나갈 때면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그곳에서 반신불수가 되어 말도 잘 못하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증 환자들을 보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고 스스로의 소명감을 느끼곤 했다.

의사가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한다면, 간호사는 환자가 이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 한다. 그러나 고혈압 중 특히 본태성 고혈압은 완치가 힘든 질병이다. 따라서 합병증에 의한 뇌졸증 등의 치명적 질환의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이 때문에 병원에서도 자가간호(self car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처음 얼마간은 열심히 따르던 환자들이 요법을 끊었다고 해서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병의 특성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고혈압 환자가 건강행위 이행률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내가 다니던 성당의 협조를 얻어 연구를 시작했다.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비슷한 조건의 상태인 고혈압 환자를 두 군으로 각 34명씩 선정한 후에 각각 한시간에 걸쳐 조절요법의 중요성과 후유증을 강조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후 한 달 만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두 군 모두 혈압과 건강행위 이행상태(식이, 운동, 약물섭취)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두 군의 결과는 거의 비슷했고 이는 교육의 효과로 보였다.

더 나아가, 그 중 한 군에게는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 계약이라는 실험적 조치를 하였다. 그것은 건강 관리자인 나와 대상자간에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도달을 위하여 대상자는 식이, 운동, 약물요법으로 대표되는 자가간호를, 나는 한달마다의 지속적인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대상자들은 잘 따라 주었고, 나는 성취도에 따른 칭찬과 독려로 그들을 도왔다.

그 결과는 6개월 후에 나타났다.

교육시점에서 6개월 후, 양 군을 각각 검사해 본 결과, 계약을 실행했던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즉 실험군의 경우 자가간호 이행도 잘 했으며 혈압도 거의 정상을 유지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본태성 고혈압의 후유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연구만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그 결과가 건강 계약의 효과인지, 주기적 관리에 의한 강화의 효과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관심과 관리의 중요성은 실증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계속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위 내용은 지면 관계와 글의 성격상 피상적인 결과를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건

강계약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연구에 대한 일정과 활용이 학문이 발전하는 길이다.

지금도 충분히 여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관리소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

부디 이 글이 고혈압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무섭게 던진 한마디



朴賢淳(73년 家政大卒)

KBS 제2라디오차장

그렇지만 여유있게 일에 대한 애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면서 이러한 평생 직업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밝히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이 끊어 넘치는 시절— 짚었으니까.

매년 가을마다 차장승진 시험이 있고 봄 여름이면 있는 인사철이 아니더라도 20년이 넘는 프로듀서 이전의 한 조직인으로서 부딪치는 순간 순간마다, 염증을 느낄 때마다, 다른 유혹을 느낄 때마다 문득 내가 무섭게 던진 한마디를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한다.

입사 13년만에 차장 승진 대상 5배 수에 뽑혀서 필기시험에 합격, 선발 정원 2배수에 들어 면접을 받게 된 것 이 86년, 지금부터 9년전의 일이다.

넓은 면접시험장에 당시 사장을 비롯 5명의 임원들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소속과 이름을 대고 면접자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떨어졌다.

『결혼을 했구만, 남편은 어떤 일을 하니?』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딥니다.』

그러자 떨어진 다음 질문.

『그럼 언제까지 다닐껀가?』

방송발전에 관한 좋은 방안같은 상식적 질문을 기대했었는데 이건 관두라는 말이야 뭐야. 순간적으로 열을 왕창 받고는 드라마틱하게 약간의 포즈를 둔 다음 속사포같이 대답을 던졌다.

『KBS에 빼를 물겠습니다.』

순간 고사장은 정적이었고 곧 됐으니 나가라는 말이 있었다.

사실 프로듀서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하고 딴 눈을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문업소 탐방

바우네 떡갈비

(02)393-9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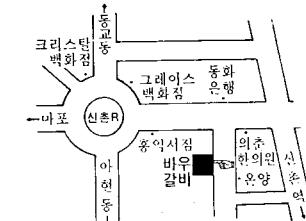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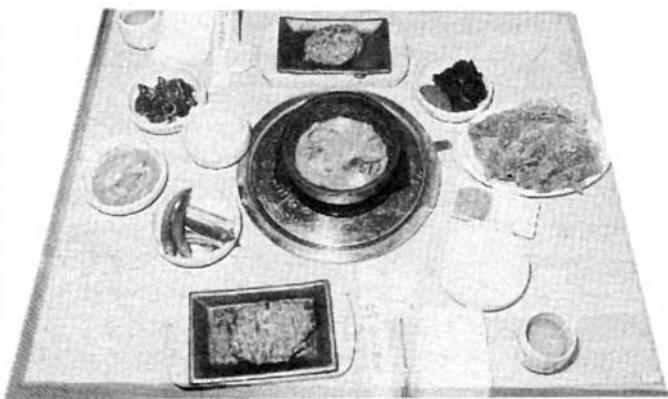


신촌 대학가에 위치한 「바우네 떡갈비」집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조교나 학생, 멀리서 찾아온 미식기들로 항상 붐빈다. 환풍장치, 전통한옥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실내 분위기와 깔끔한 맛, 게다가 친절하고 인심좋은 인텔리 주인 아줌마는 이 집의 매력 포인트. 바로 趙行淑(51년 法大入)동문이다. 투직한 손주의 별명을 따서 지은 「바우」라는 이름은 「변함없는 맛과 정성을 제공한다」

는 경영철학이 담겨있다. 한우고기만을 고집하는 이 집의 대표적 메뉴인 「떡갈비」는 떡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갈비살을 다지고 양념해 고기떡을 만들어 철판에 구운 것을 말한다. 가격은 1인분에 8천원으로 공기밥과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장국이 원하는 만큼 제공된다. 소문난 맛의 비결은 양념과 고기의 적절한 조화라는데, 趙동문은 「법학과의 유일

한 여학생이라 아침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남자친구들의 홍보 덕을 많이 보고 있다」며 친구자랑으로 돌린다.

그밖의 메뉴로는 냉면, 갈비, 생등심, 낚지볶음등이 있으며 1, 2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비해 푸짐하고 뛰어난 맛 때문에 단체회식 손님이 많은 편이다. 주차장은 그레이스백화점 놀이터 뒤에 완비돼 있다. (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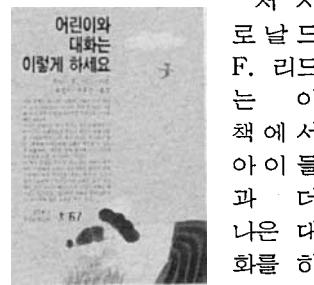
- 알립 -
「맛과 멋」은 同門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업소를 탐방하여 소개하는 样입니다.
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저희 편집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T. 703-5954~6
F. 703-0755



新刊

■ 어린이와 대화는 이렇게 하세요

…黃環植·劉湜鍾 共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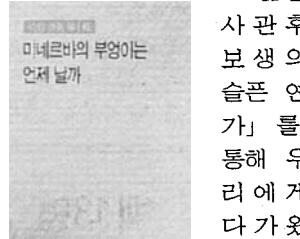


저자로 날드 F. 리드는 이 책에서 아이들과 더 나은 대화를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려면 부모들은 먼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아이 스스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黃環植(70년 文理大卒)동문은 모교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수의 어린이 철학소설 및 동화등을 번역해 왔고 劉湜鍾(87년 師範大卒)동문은 반포여중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해왔다. (샘터판·값4천원)

■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언제 날까

…朴奇烈 著



「젊은 사관 후보생의 슬픈 연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던 朴奇烈(58년 師範大卒)동문의 두번째 간행물이자 첫 詩集.

朴동문은 책머리에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네르바여신(지혜·기예·전쟁의 여신)의 부엉이는 어둠이 짙게 깔릴 때 비상한다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시기는 모든 지혜가 발동하고 일의 성패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어떤 일의 가닥이 잡히고 열매가 맺는 결실기라고 말하고 있다.

5부 53편의 시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牡岩이라는朴동문의 아호에 걸맞게 언제나 변색하지 않고 변할 줄 모르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朴동문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 율곡교원연수원 교육연구사로 재직중이다. (미래문화사刊·값3천원)

■ 신4극 체제하의 경제전략

…朴泰榮 著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대비하고 자노력 한흔적 이물씬 풍기는 朴泰榮(66년 商大卒·국회의원)동문의 저작.

이 책은 총8장에 걸쳐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정리하고 국제 경쟁력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의 경험, 기업경영에 참여해 익힌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과 우리 국토의 편중적 발전에 대한 비판적 평가속에서 그 썩을 키워왔던朴동문은 이 책에서 21세기 중국의 부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環黃海經濟圈을 구축, 새로운 한국경제의 도약을 준비하고 역설하고 있다. (동문사刊·값8천원)

<정리=安興燮 기자>

모교소식

제49회 학위수여식 총5천8백76명 졸업



졸업식사상 동창회장으로는 최초로 金在淳회장이 축사를 했다.

모교(총장 金鍾云)는 지난달 25일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제49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李賢宰전임총장, 金鍾云총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와 모교 관계자,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馬景錫부회장, 李世基사무처장 등 각계인사가 다수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총장 식사 및 회장 축사 3면 게재)

崔明교무처장은 학사보고에서『서울대는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의 산실로서 그동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날 학위수여자는 총5천8백76명으로 학사 3천6백46명, 석사 1천8백20명, 박사 4백10명이다. 이로써 서울대 개교 이래 총학위수여자는 18만2천94명으로 늘었으며, 학사 13만5천5백65명, 석사 3만8천6백49명, 박사 7천8백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졸업자를 대표한 김민정(박사), 손인자(석사), 이문주(학사) 양등에 대한 학위수여가 있은 후, 음대 박인수교수는 「희망의 나라로」란 노래를 열창,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단과대학 수석졸

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이 거행됐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 최경희- 강진호 △사회대: 이운정- 나은경 △자연대: 이영민- 서진욱 △가정대: 성미영- 박가영 △간호대: 박정수- 김윤정 △경영대: 천상훈- 이정훈 △공대: 김도완- 차두환 △농생대: 박찬웅- 서보성 △미대: 이문주- 조혜정 △법대: 천경훈- 김진오 △사범대: 이은영- 오지숙 △수의대: 박수진- 양재만 △약대: 유지형- 임경민 △음대: 손민정- 조성은 △의대: 김강모- 김성혜 △치대: 최미라- 윤필영

동창회 총회원 21만4천1백13명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단위 명)

구 분	2월졸업	총 회 원
인 문 대 학	271	6,150
사회과학대학	358	7,771
자연과학대학	276	6,208
가 정 대 학	104	2,451
간 호 대 학	71	2,550
경 영 대 학	197	3,517
공 과 대 학	706	27,765
농 과 대 학	423	15,251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17	3,469
법 과 대 학	213	12,311
사 법 대 학	350	20,066
상 과 대 학	-	6,723
수 의 과 대 학	45	1,556
약 학 대 학	78	4,990
음 악 대 학	147	5,099
의 과 대 학	192	8,549
치 과 대 학	98	4,695
대 학 원	2,079	43,485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보 건 대 학 원	52	1,955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49	3,144
환경 대 학 원	50	1,213
소 계	5,876	200,775
준 회 원		13,338
총 계		214,113

「장기발전계획」 확정

모교는 지난 16일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안에 드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수의 획기적인 증원, 독자적인 입학제도 운영, 국제교류의 활성화, 법대 의대 치대 사대등 일부 단과대학의 대학원과정으로의 전환, 제2캠퍼스조성 등을 골자로한 「장기발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대 2000년대 미래상」자료에 따르면 모교는 학교법을 제정, 교육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이 대폭 보장되는 국무총리 산하의 특수법인체로 전환해 독자적인

학사와 인사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토대위에서 고교내신 성적 및 수학능력시험, 본고사 이외에 고교추천서와 과외활동 실적등의 자료를 활용한 독자적인 학생선발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미국 LA와 중국 연변에 해외분교를 설치하고 국제교류를 전담할 국제처(가칭)를 신설해 교수 및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農·獸醫大 관악이전

캠퍼스계획위원회(위원장 金商周)는 지난 13일 수원의 농업생명과학대와 수의대를 관악 캠퍼스내 자연대운동장옆 현차량기지 자리와 체육관옆에 건설중인 소동물병원 근처로 각각 옮기기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농생대는 4천5백평 규모의 차량기지 자리에 총 9백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3층·지상6층, 연간평 2만5천6백50평의 건물을 지어 이전 키로 했다.

수의대는 정문 동쪽 체육관 옆 3천5백5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단독건물을 건립키로 했다. (鑒)

李桓교수등 18명 정년퇴임 金鍾云총장 이임식도 열려

지난 2월 28일 교수 18명의 정년퇴임식이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桓교수(불문학), 金俊鎬교수(생물학), 李禹永교수(화학), 尹定燮교수(토목공학), 玄炳九교수(자원공학), 黃迪仁교수(사법학), 丘仁煥교수(국어교육), 李孟成교수(영어교육), 權宗國교수(수의학), 林昌亨교수(수의학), 金信根교수(제약학), 康芸京교수(기악), 李基媛교수(기악), 李南洙교수(작곡), 金洙泰교수(의학), 金昇元교수(의학), 金祐謙교수(의학), 金周完교수(의학)(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한편 정년퇴임식과는 별도로 제19대 金鍾云총장 이임식이 이날 오후 4시 金淑喜교육부장관, 趙完圭前총장, 金商周부총장, 金哲洙교수를 비롯 보직교수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金淑喜교육부장관은 金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傳授했다.

金총장은 지난 91년도에 총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한 바 있으며 그동안 교육공무원의 자격으로 복직해왔다.

사회과학대학연구동 개관 20년만에 통합건물 가져

사회과학대학(학장 金世源)은 지난달 21일 金榮國(본보 논설 위원)교수, 滕鏞慶교수등 6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과학대학 연구棟 준공 및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하1층 지상6층, 1백26평의 이 건물에는 학부 10개학과, 10개 연구소, 19개 강의실을 비롯해 교수연구실, 도서관, 전산실등이 마련됐다. 이로써 20여년 숙원이었던 사회대학의 통합건물소유가 가능해졌다.

金학장은 인사말에서『사회과학대학 2관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의 결실』이라고 강조하고『한자리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서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金鍾云총장은 치사를 통해『그동안 이공계대학에 비해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는데 오늘 사회대학의 준공을 맞아 학문간의 균형발전과 사회과학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하고, 이번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았던 (주)현대산업개발의 김순태 이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도서관학술정보시스템 가동 우리 기술만으로 이룬 쾌거

중앙도서관(관장 朴孝根)은 최신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온 도서관 전산화사업의 1단계로 학술정보시스템(SOLARS)을 개발, 지난달 21일 첫 가동식을 가졌다.

총11억의 경비가 소요된 이 시스템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4월말에는 각 학과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향후 전국대학도서관망을 구축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최신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朴관장은 경과보고에서『50년간 사용했던 카드목록함대신 그 자리에 컴퓨터가 들어선 모습을 보니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며『도서관 전산화의 첫걸음을 디는 오늘로 학술정보를 24시간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金鍾云총장은『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 결실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하고『이 사업은 서울대 하나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대학도서관 전산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끈 한국컴퓨터를 비롯해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기념테이프 절단에 이어 試演이 있었다.

특파원 25時

한국인 필리핀서 피랍

홍콩 특파원 시절-

모처럼 여유가 있다 싶어서 혼자서 무작정 市외곽으로 빠져나와 있던 어느날 토요일 오후, 허리춤에 꽂혀 있던 「빼빼」가 갑자기 요동을 쳤다. 서울 本社 외신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했다.

『鄭선배, 필리핀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납치됐는데. 즉각 현장으로 뛰십시오. 밤9시 뉴스에 현장을 위성으로 물리라는 지시입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마닐라행 비행기 좌석이 남아 있는지가 우선 문제고 서울시각 밤9시까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조차도 계산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료카메라 특파원을 수배해야하고 출장여비도 문제였다. 지갑 속에는 세 사람分 마닐라 편도 항공료 정도가 고작 이었다.

마침 집에 돌아가 있던 카메라 특파원은 즉각 연락이 끊었다. 사무실로 나가 ENG카메라등 장비를 챙겨서 공항으로 나오게 하고는 우리 집으로 급히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천만다행, 그女도 집에 있었다.

『여보 마닐라 출장이야. 며칠이 될지는 나도 몰라. 옷가방하고 돈 있는 대로 챙겨서 즉시 공항으로 나와』

급하다는 당부를 끝으로 수화기를 놓고는 마치 용수철처럼 공항으로 나는 뛰어져 나갔다.

홍콩 카이탁공항-

그날 마닐라행 마지막便 출발시각 15분전이었다. 동료카메라 특파원은 눈에 띄었지만 정작 「돈 보따리」는 보이지 않았다. 홍콩주재 국내 동료 특파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특종과 낙종의 갈림길이었다. 머뭇거릴수가 없었다. 지갑을 털어 두 장의 표를 사들고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비행기 속으로 뛰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동료 특파원들이 야릇한 웃음으로 우리 둘을 맞아 주었다. 그러나 정작 KBS 상대放送社의 특파원은 보이지 않았다.

마닐라에서 먹고 잘 일이 막연했지만 상대사가 원천적으로 「물」을 먹었다는 會心의 미소도 잠시-



鄭書九 (69년 文理大卒)KBS진주방송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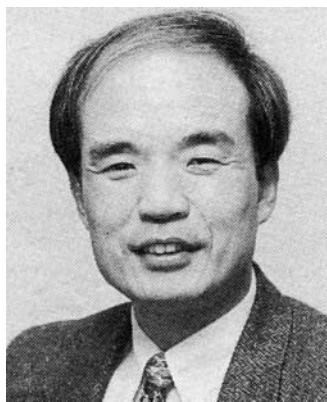
『鄭兄! 가방받아. 좀 전해달래』

특종과 낙종을 함께 면했다는 절반의 승부에 자위하면서 그제야 휴~ 한숨을 내뿜을 수가 있었다.

결국 서울과 마닐라 사이 時差의 마술 덕분에 9시 뉴스 위성대담의 임무를 완수했지만 참으로 피를 말리는 순간들이었다.

그래도 지구는 둘듯이, 放送시간을 대지 못하는 평크사고는 없다. 오직 神의 가호이련가?

김일성 피살 오보 「說」字로 특종상받아



李揆振 (76년 社會大卒) 중앙일보전국부장

참으로 이상한 특종이었다.

5共 말기, 그러니까 富川署 성고문 사건, 建國大 검거농성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라안이 온통 어수선했던 86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정확히(지금 기록을 찾아보니) 86년 11월 17일 오전 中央日報 편집국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방부로부터 北傀(그때는 北韓을 이렇게 호칭했다) 金日成이 총맞아 죽었다는 초기 급 뉴스가 들어온 것이었다.

세계적인 뉴스에 모두들 바쁘게 들이갔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출입처는 물론 위성면·東京 등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에게 초비상이 걸렸다.

당시 외신부(지금은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나는 텔레타이프에 딱 불어 앉아 세계 각지에서 들어 오는 외신뉴스를 눈이 둑어져라 지켜보았다. 특히 金日成 사망 소식이 들어올 만한 모스크바·北京·워싱턴·東京·홍콩 기사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딱 떨어지게 金日成이 죽었다는 뉴스는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서울發 기사로 한국의 국

방부가 발표한 내용만 들어 올 뿐이었다.

오히려 평양의 상황은 金日成이 죽었음을 시사하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는 평양의 서방소식통이 전하는 뉴스가 홍콩으로부터 들어 오고 있었다. 일단 이 같은 외신뉴스는 국장단에 전달됐다.

국장단은 결국 국방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1면 머리에 「金日成 被殺說」 통단 컷제목의 뉴스를 가판에 실어내보냈다. 다른 석간신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신문은 아예 「金日成 被殺」의 단정적 제목을 달았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다. 기사제목에서 「說」자를 빼느냐 마느냐가 3판 마감시간이 다가오면서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었다. 의견이 분분했다.

편집국장의 외신확인 요구가 빗발쳤다. 그때 나는 『공산권의 관례대로라면 소련 공산당의 컨들란스(애도)가 나와야 한다. 이 상태대로라면 金日成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내 주장이 받아들여져 「說」자가 제목에 그대로 살아 나갔다.

金日成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음은 다음날 북한 중앙통신이 「金日成同志가 평양공항에서 봉고인민공화국 국기주석 바트문호동지를 따뜻이 영접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확인됐다.

당시 언론들이 오보하도록 만든 이 사건은 결국 국방장관을 물러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한테는 이 사건이 「說」자 한 字로 인해 특종상을 타는 행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취재현장에서 뛰지도 않고 더우기 기사 한 줄 쓰지 않고 상을 받게 해 준 「이상한 특종」이었다.

검찰청의 연막작전 끝까지 헤쳐 얹은 개가



金秀鳳 (78년 法大卒) TBC뉴스제작팀장

문화방송 기자로 출발해 언론계에 빌을 내디딘지 올해로 14년째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특종을 건져내기는 했지만 화려한 무용담을 펼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입장이라 그간의 기자생활중 동문의 도움으로 특종을 얻어낸 에피소드 한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기자초년병 시절인 85년 6월쯤으로 기억된다. 법조 2진기자로 매일 서소문 검찰청사 주위를 청바퀴 돌듯 바빠 뛰어다니던 시절이다. 당시 모 학재단의 K모 이사장이 거액의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이 돈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

명예훼손의 우려도 있고 해서 보도는 하지 못하고 검찰이 당사자를 구속하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여느때나 마찬가지로 새벽점검을 위해 서울형사지방법원 영장계에 들러 간밤의 영장 발급 대장을 살펴던 중 두 칸이 비어있음을 발견했다. 영장계 직원에게 물어보니 실수로 그랬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영장발급번호는 주어져 있는데 인적사항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 뭔가 감추는게 있다는 느낌이 오면서 직감적으로 K모 이사장 사건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즉시 자리를 뜯겨 당직판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특별한 일도 없는 새벽 잠만 깨운다」는 볼멘 소리만 들었다. 그러나 뭔가 있다는 생각은 멀칠 수가 없었고 누구한테 확인을 구해야 할지 궁리를 계속했다. K모 이사장 사건을 맡고 있는 중수부 4과장은 철저한 오리발형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고민끝에 사건보고 계선 주변에 있는 모 동문선배에게 매달려 보기로 했다.

『새벽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만 K 이사장이 간밤에 구속됐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영장대장을 살펴보니 두 칸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구속됐다는 증거가 되나?』

『그러면 다른 사건이 또 있습니까?』

『…부지런하니까 하나 쟁기는 구만』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이 6시20분 쯤이었고 아침 7시 TV뉴스에는 「K모 이사장 거액 횡령과 외환도피 혐의로 구속」 리포트가 머리기사로 나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자 「열심히 하면 하늘도 도운다고 하지 않는가」하는 그 선배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 알립 —

동문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동호모임이나 기관별 모임에 대한 원고와 사진을 빙고 있습니다.

행사내용등을 적어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703-5954~6
FAX 703-0755

▲허영만⑥⑧	▲허은강⑧	▲이원구⑦	▲이정옥⑥	◇ 獸醫科大學	▲김중곤⑦	▲민병옥⑥	▲고희수⑦	▲김동배⑦	▲이건홍	▲홍유신
▲허진호⑥⑧	▲황덕남⑥	▲이종덕⑥	▲이종진⑥		▲박경자⑥	▲박미정⑨	▲노동설⑦	▲신중호⑥⑧	▲정민근	▲서의호
▲황정숙⑥	▲황진효⑥	▲이형근⑥	▲이호락⑥	▲김병선⑥	▲김승중⑦	▲박성호⑨	▲박수성⑥		▲전치혁	▲김광수
◇ 師範大學		▲이환배⑥	▲이효봉⑥	▲김종남⑥	▲김종상⑥	▲박중열⑥	▲배은정⑦	◇ 教育大學	▲최인준	▲조현보
▲임석준④	▲권영인⑥	▲임수오⑥	▲김태화①	▲손태영⑥	▲서유현⑦	▲석세일⑥	▲강영삼⑥	▲박병랑⑥	▲김동한	▲구자강
▲김수원①	▲김순애⑥	▲임인섭⑥	▲신문균⑥	▲유천희⑥	▲성기준⑥	▲신미강⑥	▲신의철⑥	▲안황규⑥	▲이동녕	▲오세웅
▲김순실①	▲엄옥금⑥	▲전영종⑥	▲이호준⑥	▲정 특⑥	▲안기주⑥	▲오 철⑥	▲조낙현⑦		▲남궁원	▲석성호
▲이능자④	▲전영옥⑥	▲정갑표⑥	▲정경대⑥	▲정진기⑥	▲정태석⑥	▲유영진⑥	▲유재란⑥	▲유세화⑥	▲유창모	▲고인수
▲정세진⑥	▲정순영⑥	▲정계순⑥	▲정상박⑥	▲정흘래⑥	▲주찬용⑥	▲이애주⑥	▲이정신⑥	▲이형복⑥	▲조무현	▲정윤희
▲최옥자⑥	▲허봉출⑥	▲정우상⑥	▲정정도⑥	▲최명구⑥	▲최영래⑥	▲이호왕⑥	▲전대한⑥	▲장영기⑥	▲강명호	▲김승환
▲허봉출⑥	▲홍용표⑥	▲정환용⑥	▲조경제⑥	▲한기영⑥	▲한장희⑥	▲조민구⑥	▲주석규⑥	▲정현주⑥	▲오종훈	▲권경환
▲계형보⑤	▲고준아⑥	▲조규완⑥	▲조병두⑥	▲조병우⑥	▲조병우⑥	▲최승현⑥	▲함명립⑥	▲이정립⑥	▲이정림	▲김광익
▲곽형기⑥	▲구자혁⑥	▲조재승⑥	▲조정제⑥	▲조현우⑥	▲오원의⑥	▲김경희⑥	▲김경희⑥	▲정현주⑥	▲최재경	▲권용훈
▲구장희⑥	▲권형로⑥	▲조항근⑥	▲조현민⑥	▲진경진⑥	▲임중수⑥	▲이정희⑥	▲이정희⑥	▲이정희⑥	▲이의용	▲신희섭
▲김 아⑥	▲김 철⑥	▲주성민⑥	▲진위교⑥	▲최병도⑥	▲정양순⑥	▲한덕환⑥	▲조민구⑥	▲주석규⑥	▲이영숙	▲류성호
▲김 흥⑥	▲김기순⑥	▲진위교⑥	▲최병도⑥	▲김용찬⑥	▲김종윤⑥	▲김해만⑥	▲임병서⑥	▲김경희⑥	▲서판길	▲김경태
▲김나중⑥	▲김도기⑥	▲최수옥⑥	▲최용섭⑥	▲김춘수⑥	▲김학군⑥	▲김경우⑥	▲김축준⑥	▲윤규호⑥	▲장승기	▲오병하
▲김동필⑥	▲김두환⑥	▲최운식⑥	▲최의찬⑥	▲김홍중⑥	▲박미순⑥	▲정낙현⑥	▲강명회⑥	▲윤규호⑥	▲박인희	
▲김만수⑥	▲김명숙⑥	▲최홍규⑥	▲편명범⑥	▲박병국⑥	▲박종우⑥	▲정낙현⑥	▲김지순⑥	▲김규선⑥	▲최상호	▲김지배
▲김부웅⑥	▲김상훈⑥	▲한양재⑥	▲한연종⑥	▲박종우⑥	▲박종우⑥	▲김운근⑥	▲고영택⑥	▲김종면⑥	▲정유섭	▲이영섭
▲김성식⑥	▲김영일⑥	▲허현도⑥	▲홍성화⑥	▲오 선⑥	▲옥치완⑥	▲고재승⑥	▲권영오⑥	▲김현숙⑥	▲조재천	▲최학배
▲김옥희⑥	▲김용선⑥	▲홍정길⑥		▲유재렬⑥	▲윤명섭⑥	▲권학춘⑥	▲김경원⑥	▲염도균⑥	▲운동기	▲권희안
▲김은숙⑥	▲김정길⑥	◇ 商科大學		▲이덕희⑥	▲이명걸⑥	▲김선영⑥	▲김정태⑥	▲오태석⑥	▲박동욱	▲유승국
▲김진악⑥	▲김하진⑥			▲이석구⑥	▲이재한⑥	▲김현덕⑥	▲남한우⑥	▲이영호⑥	▲이준용	▲구본암
▲김학관⑥	▲김형덕⑥	▲이태호⑥	▲주영화⑥	▲이태훈⑥	▲임채원⑥	▲목영준⑥	▲문제백⑥	▲허필국⑥	▲이수재	▲황광진
▲노희관⑥	▲도재원⑥	▲곽운광⑥	▲곽지용⑥	▲정구경⑥	▲정만익⑥	▲문창남⑥	▲민병희⑥	▲김규선⑥	▲최혜정	▲남웅현
▲마희창⑥	▲명복현⑥	▲권오주⑥	▲김근배⑥	▲정숙기⑥	▲정용호⑥	▲박기육⑥	▲박이자⑥	▲김종면⑥	▲지정옥	▲김영미
▲문명희⑥	▲민무일⑥	▲김안웅⑥	▲김영희⑥	▲정정희⑥	▲조남주⑥	▲부정선⑥	▲송병국⑥	▲강덕원⑥	▲고병호⑥	▲최중부
▲박동백⑥	▲박배훈⑥	▲김종훈⑥	▲김주남⑥	▲조원형⑥	▲지달현⑥	▲신현배⑥	▲안동성⑥	▲고성하⑥	▲김학엽	▲김병영
▲박승준⑥	▲박운상⑥	▲김창남⑥	▲박영기⑥	▲한창식⑥	▲홍기석⑥	▲유동수⑥	▲이근국⑥	▲김창익⑥	▲이기호	▲이기호
▲박인기⑥	▲박재근⑥	▲박응렬⑥	▲박종석⑥	▲홍순태⑥	▲황봉실⑥	▲이기우⑥	▲이동철⑥	▲유덕률⑥	▲최영길	▲임현수
▲박정도⑥	▲박준희⑥	▲박태준⑥	▲백현철⑥	◇ 音樂大學	▲이상표⑥	▲이수임⑥	▲이상표⑥	▲임규승⑥	▲백두종	▲김준섭
▲서신석⑥	▲서영수⑥	▲소구영⑥	▲송유건⑥		▲이승은⑥	▲이완수⑥	▲이승은⑥	▲임승달⑥	▲이성훈	▲백승현
▲서정기⑥	▲서지영⑥	▲신용태⑥	▲신직성⑥	▲강진구⑥	▲김경혜⑥	▲이용희⑥	▲이의웅⑥	◇ 포항공대	▲신동익	
▲성기종⑥	▲송태성⑥	▲안재준⑥	▲오휘명⑥	▲김윤경⑥	▲김중곤⑥	▲이주민⑥	▲이진태⑥	▲장수영	▲박수용	
▲신 영⑥	▲신기호⑥	▲원정연⑥	▲유문화⑥	▲노주원⑥	▲배일완⑥	▲이창순⑥	▲이태구⑥	▲장태현	▲정무영	
▲신세영⑥	▲신용한⑥	▲유재홍⑥	▲유철환⑥	▲송복자⑥	▲송혜경⑥	▲이태영⑥	▲임성삼⑥	▲정영원	▲정성학	
▲신인식⑥	▲신흥균⑥	▲윤병복⑥	▲윤봉준⑥	▲어수희⑥	▲이명희⑥	▲정의종⑥	▲정종화⑥	▲전종환	▲박현철	
▲안국진⑥	▲안성희⑥	▲은희철⑥	▲이근영⑥	▲이상녕⑥	▲정영주⑥	▲정창진⑥	▲지형숙⑥	▲권태현	▲공대식	
▲안횡균⑥	▲엄기준⑥	▲이대희⑥	▲이상린⑥	▲차임선⑥	▲최수연⑥	▲최낙준⑥	▲최성훈⑥	▲홍성제	▲류민주	
▲오갑군⑥	▲오인영⑥	▲이수길⑥	▲이용성⑥	▲황성자⑥	◇ 醫科大學	▲한경섭⑥	▲황정일⑥	▲박찬익	▲김동승	▲김영훈
▲유민원⑥	▲유태근⑥	▲이의근⑥	▲이재우⑥			▲김기혁⑥	▲김병옥⑥	▲김명수	▲이영태	▲김정태
▲윤 용⑥	▲윤병웅⑥	▲이주희⑥	▲이창옥⑥	▲장건수⑥	▲노춘택⑥	▲김기혁⑥	▲김병옥⑥	▲권오대	▲이근배	▲조동식
▲윤영철⑥	▲윤종상⑥	▲임형균⑥	▲장건수⑥	▲노춘택⑥	▲이대녕⑥	▲김기혁⑥	▲김영수	▲김대만	▲이종혁	▲김진태
▲이갑상⑥	▲이건창⑥	▲정해운⑥	▲최종우⑥	▲권영표⑥	▲김규환⑥	▲김정국⑥	▲원상철	▲심훈섭	▲이상경	
▲이동규⑥	▲이병무⑥	▲하명근⑥	▲하승우⑥	▲김재욱⑥	▲박영일⑥	▲윤용중⑥	▲이필중	▲오세영	▲박위상	
▲이병주⑥	▲이병호⑥	▲한장식⑥	▲한호진⑥	▲정희영⑥	▲주규완⑥	▲장신요⑥	▲이진수	▲박우진	▲박현준	
▲이석주⑥	▲이선원⑥	▲허증송⑥	▲홍일표⑥	▲강재헌⑥	▲권용준⑥	▲채의업⑥	▲홍기상	▲김상우	▲전경훈	
▲이성규⑥	▲이시훈⑥	▲황의길⑥		▲김동운⑥	▲김은경⑥	▲김이영⑥	▲김오현	▲김효태	= 20만 원	
▲이영숙⑥	▲이옥자⑥			▲김주완⑥			▲정 흥	▲송우진	▲박홍준	

지 부

◇ 環境大學	▲김규선⑥	▲김종면⑥
	▲김지순⑥	▲박재석⑥
	▲서성원⑥	▲안병주⑥
	▲염도균⑥	▲오거돈⑥
	▲고성하⑥	▲김창익⑥
	▲김현숙⑥	▲김병원⑥
	▲이기호⑥	▲고병호⑥
	▲허필국⑥	▲지정옥
	▲이준용	▲김영미
	▲이수재	▲최혜정
	▲황광진	▲남웅현
	▲최혜정	▲김영미
	▲정유섭	▲이영섭
	▲이영섭	▲최학배
	▲이영미	▲김영미
	▲최중부	▲최중부
	▲김학엽	▲김병영
	▲김병영	▲이기호
	▲김병영	▲김병영
	▲김병영	▲김영준
	▲김영준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김진태	▲이상경
	▲이상경	

◇ (주)메디슨

▲황재섭	▲여청모
▲정유섭	▲강민희
▲조재천	▲고석빈
▲최학배	▲류민주
▲윤동기	▲임영준
▲박동욱	▲김영준
▲유승국	▲김영준
▲이준용	▲김영준
▲이수재	▲김영준
▲황광진	▲김영준
▲최혜정	▲김영준
▲남웅현	▲김영준
▲김영미	▲김영준
▲이영섭	▲김영준
▲최중부	▲김영준
▲김학엽	▲김영준
▲김병영	▲김영준
▲이기호	▲김영준
▲김병영	▲김영준
▲김병영	▲김영준
▲김병영	▲김영준
▲김영준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인

◇ 성업공사 徐聖英(64년
法大卒)=1좌
◇ 태광화학공업(주) 朴
閔泰(72년 工大卒)=6좌
◇ 범아 종합건축 金宗根
(58년 工大卒)=2좌
◇ (주)KET 인터내셔널
嚴鶴善(71년 經大院卒)
=1좌
◇ (주) 대창공업 경리부
趙時永(AMP 35기)=5
좌
◇ 한컴데이터(주) 韓洪
燮(60년 文理大入)=1좌
◇ 한국알콜산업(주) 池
昌壽(59년 商大卒)=5좌
◇ (주)코리아케미칼 李
康國(69년 工大卒)=4좌

개인

◇ 人文大學
▲ 김명준(88) ▲ 김영두(87)
▲ 김영민(89) ▲ 김진영(79)
▲ 이광용(85) ▲ 이동환(88)
▲ 이숙희(84) ▲ 이우성(76)
▲ 이자혁(89) ▲ 전승복(89)
▲ 정재훈(89) ▲ 조남호(86)
▲ 황보성(89)
◇ 社會科學大學
▲ 구태고(86) ▲ 김홍수(89)
▲ 박창재(83) ▲ 양세영(85)
▲ 윤명원(85) ▲ 윤종일(89)
▲ 이종환(83) ▲ 이태룡(85)
▲ 임현균(87) ▲ 최성철(80)
▲ 한창곤(77)
◇ 自然科學大學
▲ 강주석(88) ▲ 박상욱(89)
▲ 박승철(78) ▲ 박철우(86)
▲ 손중모(87) ▲ 염현영(84)
▲ 이인숙(77) ▲ 이준호(86)
▲ 이현수(89) ▲ 장준(89)
▲ 최진혁(78)
◇ 家政大學
▲ 김옥경(76) ▲ 이영숙(76)
▲ 임영순(89) ▲ 조성교(73)
◇ 看護大學
▲ 김성자(86) ▲ 김화중(67)

▲ 송민희(87) ▲ 오덕자(68)
▲ 유숙자(63)

◇ 經營大學

▲ 김명관(86) ▲ 김영수(86)

▲ 김인수(88) ▲ 박연종(85)

▲ 심홍섭(87) ▲ 윤한웅(86)

▲ 이상민(78) ▲ 이유재(82)

◇ 工科大學

▲ 김기환(88) ▲ 정기환(88)

▲ 전기환(88) ▲ 정재봉(89)

▲ 정현(86) ▲ 조성희(85)

▲ 최정욱(88) ▲ 한선구(85)

▲ 전대원(67) ▲ 전병대(72)
▲ 정기호(89) ▲ 정영삼(74)

▲ 정희(65) ▲ 정준(86)

▲ 정철진(81) ▲ 정해복(85)

▲ 주길중(69) ▲ 주길중(69)

▲ 주서진(88) ▲ 주재휘(79)

▲ 지철근(51) ▲ 최강호(80)

▲ 최광열(78) ▲ 최광열(78)

▲ 최선원(70) ▲ 최충석(70)

▲ 하준환(55) ▲ 하홍주(86)

▲ 강석주(78) ▲ 한수영(83)

▲ 강수석(65) ▲ 강승은(76)

▲ 강태삼(86) ▲ 강호언(77)

▲ 꽈순태(70) ▲ 권수웅(62)

▲ 권영필(75) ▲ 권오엽(78)

▲ 권철(65) ▲ 김곤욱(89)

▲ 김동갑(82) ▲ 김동운(79)

▲ 김병관(82) ▲ 김병석(82)

▲ 김병재(73) ▲ 김상수(73)

▲ 김선장(69) ▲ 김수광(61)

▲ 김영국(56) ▲ 김영돈(86)

▲ 김영찬(83) ▲ 김영호(85)

▲ 김은종(71) ▲ 김용건(89)

▲ 김재수(79) ▲ 김정돈(77)

▲ 김정선(74) ▲ 김종근(58)

▲ 김태교(72) ▲ 김형벽(61)

▲ 이숙희(84) ▲ 이우성(76)

▲ 이자혁(89) ▲ 전승복(89)

▲ 정재훈(89) ▲ 조남호(86)

▲ 황보성(89)

◇ 農科大學

▲ 김기환(66) ▲ 김기환(66)

▲ 김기수(54) ▲ 김기수(54)

▲ 김상우(69) ▲ 김선규(61)

▲ 김선중(74) ▲ 김승우(64)

▲ 김인중(61) ▲ 김제식(82)

▲ 김종구(63) ▲ 김종철(60)

▲ 김주호(58) ▲ 김준호(56)

▲ 김중연(57) ▲ 김진만(64)

▲ 김창희(56) ▲ 김태환(55)

▲ 김현철(63) ▲ 김희진(58)

▲ 남궁민(78) ▲ 노경식(87)

▲ 목요상(61) ▲ 박두현(59)

▲ 박만(74) ▲ 박병민(73)

▲ 박성근(63) ▲ 박성진(89)

▲ 박성철(79) ▲ 박충순(56)

▲ 박우철(74) ▲ 박윤기(76)

▲ 박우석(59) ▲ 박주섭(59)

▲ 박창호(62) ▲ 박창호(62)

▲ 박호천(81) ▲ 박호천(81)

▲ 최정호(57) ▲ 한필순(60)

▲ 홍순호(66) ▲ 홍종웅(72)

◇ 美術大學

▲ 민경우(70) ▲ 차임선(70)

▲ 한필순(60) ▲ 박정숙(70)

▲ 박정숙(70) ▲ 안완석(80)

▲ 우세홍(65) ▲ 유병섭(89)

▲ 윤홍중(61) ▲ 이곤선(58)

▲ 이광우(61) ▲ 이길재(75)

▲ 이상남(66) ▲ 이영인(78)

▲ 강성목(56) ▲ 강용구(56)

▲ 강홍주(62) ▲ 김기수(54)

▲ 김상우(69) ▲ 김선규(61)

▲ 김선중(74) ▲ 김승우(64)

▲ 김영철(60) ▲ 김용용(64)

▲ 김영철(60) ▲ 최은자(65)

▲ 김영철(60) ▲ 최광렬(80)

▲ 김영철(60) ▲ 추암석(72)

▲ 김영철(60) ▲ 한성홍(77)

▲ 김영철(60) ▲ 황경화(67)

▲ 류근찬(75) ▲ 백학순(77)

▲ 문성현(88) ▲ 강재균(51)

▲ 김두순(73) ▲ 김병수(61)

◇ 醫科大學

▲ 김병수(61) ▲ 김영덕(70)

▲ 김상인(65) ▲ 김상인(65)

이건성 이경무 이동섭 이동수
이육상 이유진 이재경 이진훈
이현용 임수호 임정재 장인분
전형우 정순인 정원구 정희돈
조 협 채수진 최대봉 최문영
최재훈 한승환 허 현 흥성관
배성은 안병우 안재석 정상수
하재구 정우영 성청경 임철봉
문용주

◇ 공과대학

▲ 건축학과

구은숙 김영민 김지현 김현주
도윤찬 박유준 박정대 박종진
박지훈 서성원 신승수 심미루
안태현 윤석주 윤현기 이상훈
이준성 장동우 장용순 정신욱
정용욱 정재홍 조재모 추희성
최원준 황주명 한혜승 이형석
김성원 서회수 이희철 임동수
임상진 정성훈 최원식 흥임표
황정하 김경태 김광춘 이동진
최덕신 김경훈 이석조 최상락
최성열 정수근 성명현

▲ 공업화학과

김광현 김배정 김범준 김용민
김유경 김한준 박성배 박희수
배재광 서동열 손동락 신규순
심규석 유승후 윤상일 윤승웅
이승진 이종찬 장인국 조동현
조진우 허정식 흥유성 흥진규
김재홍 노진오 배봉기 김종민
김형준 정재훈 허진복 황희준
김유일 박 현 이기수 흥남종
이근화 이병호

▲ 금속공학과

강영태 김남식 김대용 김용희
김재욱 김창섭 김태경 김형준
문준혁 박해석 박 현 백종아
서진삼 서진유 안중규 오회동
이광희 이동준 이상현 이유진
임형택 정세영 정증현 조재영
조호규 차필령 흥순민 김규철
문권진 방인완 안재환 조현래
김문수 김영철 김진태 김철민
안정훈 지현룡 김석용 이우진
장기명 최우석 정봉수 강신흥
노성진 김중현

▲ 기계공학과

공성봉 김성구 김용민 김재수
김정훈 김종우 김혜영 김훈재
남궁각 박정영 박종선 송찬호
신승원 이승복 이일환 임석현
정상태 정선웅 정의엽 정우호
정현수 정형욱 최봉근 최석민
한성현 흥준근 김상원 강민표
강석채 구본영 김관우 김진백
박성호 박희영 한규만 흥근조
이석우 이창재 이춘수 조자훈
황재석 이동우 강재현 김영재
현범용 김철웅 정원기 권혁영

▲ 기계설계학과

김동균 김수형 김 원 김일현
김재희 김종일 김종현 김종혁
김진욱 김 층 김태수 김현석
노경운 박규식 박찬영 서상원
안우정 안현식 안형준 양문호
오군규 이경진 이승현 이영수
이우석 임광섭 임동규 정부성
정승우 정영종 정재일 조성태
조필주 최문철 최영준 최인진
한순우 박영빈 강석원 김정현
김태환 박정현 안도현 이광일
최재호 최성광 최원석 최지현
이상원 정진혁 주영훈 윤영민
이원배 김일섭

▲ 산업공학과

구훈영 김기봉 김남국 김대환
김선주 김승준 김주신 김창욱
박범환 박상준 송명섭 유인섭
이기창 이 원 이학민 장태우
정민하 최상도 최장원 황성태
정준재 김건호 김동국 김옥경

이기리 임태수 김성환 김용상
이수용 류인수 조창현 최재일
이정호 김탄환

▲ 석유고분자공학과

김종래 강성택 강진우 고민재
고준석 박봉석 배수현 유민재
이돈원 이석원 이소연 이용욱
이재열 이재호 이정진 장영길
정정훈 조광신 조광제 조임식
진지애 최중환 최호성 허성식
허태영 김도경 임재봉 장태화
이승주 이정학 현정훈 윤홍준
이훈상 조범주 성진환 박찬경

▲ 무기재료공학과

강창협 과재훈 김동완 김종환
김태현 김형훈 박정훈 박대순
손지원 안영규 오태석 윤형석
이상법 이상주 이원호 이재형
최제원 흥은기 류관호 윤성민
우병기 권도형 박기혁 박진석

▲ 원자핵공학과

김성현 김용운 김종욱 김주열
김지현 박기원 박원석 박정훈
심형진 엄규섭 윤창한 이나영
허남정 황수현 김행근 이승필
조영호 김영승 정영기 김영섭
문정삼

▲ 자원공학과

김상권 김준모 박성경 박용준
송태을 이성규 이영규 장봉석
정구진 조수익 조희제 주경희
홍순면 문창표 백승용 안경문
이두호 박지홍 신윤석 이영진
정직한 김양수 김용길 빙영석
이현식 정슬람 노준석 이상준

▲ 전기공학과

고재현 구현철 권택정 김성근
김진호 김창균 민성욱 민웅기
박기태 방훈진 배준철 변진규
신동준 여선영 여운승 유준석
이동영 이 육 이장원 이재문
이정우 임병철 임태균 전석호
전재홍 정만호 정우준 조동혁
하정익 홍도성 이상호 임형택
지창현 황영길 손영익 안시홍
양병춘 윤도홍 이순희 금동인
김홍규 박종환 박현주 이원문
정보현 송광수 허현찬 배규식

▲ 전자공학과

강석호 권혁만 김대홍 김도완
김봉수 김정권 김효준 문기태
박종국 박진표 변명광 서강석
송인호 심상민 안재우 유남열
이승우 이진솔 이창범 이천만
이행선 임형규 장민식 정민호
이경석 정주호 김우진 류재호
박현훈 백원석 진상우 김정훈
신동현 박경수 이기상 조성렬
서지원

▲ 조선해양공학과

강태운 김 광 김성준 김지훈
김호진 문성준 박영하 박태준
백형수 송진섭 안병창 오민성
이기준 이석원 이윤구 이창현
이현호 임중현 정재욱 정필상
정현승 천창열 한상서 한상준
허철은 한성남 최낙준 고광희
김봉재 김지현 서정우 송준용
윤균중 구본영 권경배 권덕규
박병준 한상웅 박병준 이종원
차충희 손택만 김종호

▲ 토목공학과

강동욱 강상규 김경석 김문주
김태병 남효승 박진용 박현우
박홍철 유 영 이규석 이영근
이정민 이정휘 이창호 이해균
장승연 정 운 정형섭 하성욱
김영도 김용호 김홍식 박준호
곽대진 김승곤 박대홍 이길현
김용한 김창수 양성주 이길현
이정한 임홍국 정운석 김거원
정준재 김건호 김동국 김옥경

김유진 김재철 김주일 민정웅
송영일 오성훈 유옹준 이경욱
이윤희 정건복 임동근 김광수
김영호 오동익 박철우 함도진
이강성 박태환 박재형 최동진

▲ 항공우주공학과

강민성 권혁빈 김규홍 김낙완
김대인 김덕관 김성은 김유신
김형민 노영준 명대욱 문종윤
박근영 박재홍 배진우 박득균
신동호 전성진 전육표 정상억
정순완 정재훈 최창환 추연선
이정한 허 환 곽경령 신성룡
안정일 김종민 안성우 이상근
이건형

▲ 화학공학과

강병관 강정화 김병태 김연상
김윤식 김주민 박성준 박세호
서용성 어수영 이병환 이승현
이수일 이 웅 이태훈 장병태
한석우 남궁평 남판우 이형준
정현진 차두환 최병석 최영현
최홍구 하경수 김인찬 장일환
전홍재 정군건 정왕모 최광범
구본영 김관영 변석훈 이충재
박승복 이춘길 최 만 최평희
강석립 김진걸 황국동

▲ 제어계측공학과

권오성 김성범 김양오 김 육
김태한 남기태 박인규 박현자
박현주 서영우 송오석 송진우
심병호 원석진 이근재 이정우
전형근 정구민 정현해 정형철
조성호 좌동경 지상훈 최승문
홍현수 김민규 김성욱 김정환
유민수 이우성 최재순 한영모
우정민 박병대

▲ 컴퓨터공학과

권분상 김영구 김종현 김태현
김형준 박동주 박정훈 박찬익
박한규 변재훈 서 민 성민영
손영란 심정섭 이석현 이호선
이정우 임병철 임태균 전석호
전재홍 정만호 정우준 조동혁
하정익 홍도성 이상호 임형택
지창현 황영길 손영익 안시홍
양병춘 윤도홍 이순희 금동인
김홍규 박종환 박현주 이원문
정보현 송광수 허현찬 배규식

◇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학과

남홍식 문유석 박찬웅 서보성
설성민 육현총 정병환 지승훈
허문희 전한영 정경근 허용준
김중수 민병도 서정수 손준승
전대중 정주영 최재호 신복철
장남산 김교열 이명재 이상진

▲ 원예학과

강우창 김선용 김인혜 문영희
박대원 박현일 박현주 양선영
엄지미 윤기홍 이병철 이종오
전후진 조경현 최영은 현성일
김경미 김도현 강용구 김태엽
박성민 이창희 김민성 김 철
오경환 이준배 박기용 이병주

▲ 산림자원학과

고정현 김병인 박시현 박주원
서희석 양국진 이재호 정재명
김군보 김용만 강규선 강호상
김철도 윤득신 임완주 정민섭
조용인 하동준

▲ 임산공학과

김 훈 박 용 임근영 정현석
주성범 김윤환 김정원 박철웅
방상배 신종찬 오동기 고대영
구태훈 나호성 성용주 심창엽
이재현 최원규 고준학 김경홍
김성설 김창윤 류경석 안병관
양성승 채 훈 최광수 엄상문
이민경 한대식

▲ 농화학과

고범준 김성훈 김우표 박광욱
박정문 백승필 이재성 이현철

장원희 장효상 정문섭 홍광원
박태원 이승현 장상무 이의현
홍진표 강경구 강남구 김길만
김동욱 서두원 손주선 신명호
오영주 이근표 임용현 차동진

▲ 식품공학과

곽택종 김혁화 김현경 민운기
박성식 심재중 이미정 이성빈
이성주 이주량 이진경 이태훈
임상용 최정남 권대혁 류충선
민병철 조기상 동명곤 안돈준
양철호 이정민 이평천 장병호
고민석 이병윤 이형곤 조완일
김건하

▲ 농경제학과

김기역 박현섭 임형진 최경락
최선수 김정훈 조성문 강병원
김동준 송정환 안일찬 이성택
이수일 이 웅 이태훈 장병태
한석우 남궁평 남판우 이형준
이보경 이자영 조혜정 하 진
김정아 장승현 김창욱 박재웅
오창규 진 훈 이상윤 이영일
서동수 이상언 강형덕

▲ 조소과

강석호 김나영 김정희 김지인
박서형 서길현 신유진 안종배
이유미 이운정 이주현 정수진
조예원 지현경 한형석 이민경
이영우 전혜정 최명선 강준호
김영선 양세혁 조이수 우길문

▲ 공예과

강정원 권영희 김영아 신희경
심재경 유영범 이숙현 정세진
최선혜 강미연 윤여정

▲ 산업디자인과

김수정 김연주 김윤성 남태원
류승연 박성아 박재성 박진희
박현주 변경인 신연수 신연주
우수현 윤선영 이보희 이지은
조상은 한은진 황서립 서예례
김영진 이동원 이정혜 이준환
최성민 홍승표 오창섭 장정권
지현근 김일호 김종철 문준호
박선후 장철순 정의철 황성교
심상숙 연명흡 유재현 최승관

◇ 법과대학

▲ 사법학과

강석철 김병태 김석우 김소연
김영심 김재희 김혜영 노무은
민정석 박미양 박진식 박해빈
박효진 선용승 송영곤 양기진
여정현 유승립 정기만 정석종
정성무 정승오 정희찬 천경훈
최건호 하 영 하태홍 한지영
황선웅 오병권 박순덕 강영진
강화석 고범석 김도근 김동성
김상복 김상연 김성중 김수민
김양섭 김정진 김진오 김철수
김태형 김현주 노영재 맹주천
맹현무 문호준 민경택 박광서
박범석 박정수 박준의 박창주
박형순 서종수 서준식 손동규
송인우 신동찬 신영욱 신종오
신현준 신현준 안재석 여운일
오재승 윤상호 이내영 이상국
이성진 이준희 이창우 이호재
임병우 임지만 전성원 정재훈
조 열 조용범 조정욱 주진태
최동준 최재봉 하상혁 한중석
엄수진 유경희 박성기 박혜성
이춘근 이필수 임은옥 정도희
조규석 박규원 박동구 권순민
김중원 임동찬 이철기 채윤주
장기표

▲ 공법학과

권국현 김창민 김민기 김연미
김준혁 김 진 박상진 박영주
박영준 반정모 배창대 서 정
설윤정 송길대 유무곤 유정호
윤법렬 이광우 이현석 장상현
천기성 권락균 김우연 박안서

유현재 이재우 강서구 강형철
강희철 김기태 김동현 김병덕
김승호 김용범 김정홍 나현채
류창성 박창수 반성관 부준호
서보민 성재영 송경호 심우정
오상용 이수영 이은영 이재우
이정수 이주현 이준규 이준석
이태엽 이한진 이 혁 장원준
전기철 전종익 정상필 정종국
정희원 조대민 조용주 조종현
조지만 조현익 주영환 최봉진
최영락 최정운 최항석 한승호
허재혁 유혜림 김준영 이종훈
정혁진 김정기 김현옥 박우호
배성진 서문광성 이영환 이종근
최성만 최현호 표용형 흥성필
김상연 김용하 김재호 배재현
오영신 임준섭 김성주 강현구
권 준 김용갑 노 로 안영춘
정재우 조현수 태양훈 한창남
김태곤 김 현 임동식 박창규

◇ 사범대학

▲ 교육학과

김성훈 박주병 성지훈 여준호
이병임 임현수 장수정 황매향
이수정 임지현 임영빈 정승용
김유환 박정식 최종근 체두송
고승규 이미라

▲ 국어교육과

고영화 김남희 김소영 김정희
김지영 김화옥 문송희 박지인
서명희 손영미 신미나 이 용
이주영 인혜련 장현주 정정순
정진영 조은경 조현주 황혜진
김 현 남민우 유현영 조향숙
김도현

▲ 영어교육과

고연아 권혁미 김달님 김민아
김선정 김현아 김현진 박미숙
변인영 안현주 오선영 오진숙
유승민 윤미화 이명애 이연숙
이진화 이필남 정봉문 정영주
조준희 최희정 한진아 황태윤
김현숙 김은호 김재오 김태언
나진이 마지막 박성희 박현석
양성철 고광희 김병만 문준식
심창용

▲ 불어교육과

김현정 강인순 김세연 김영실
류 정 서경신 이경숙 정유라
박유성 조재협 홍수영 김성철
최재학

▲ 독어교육과

김윤미 박동한 인금철 유지민
임재화 김영래 김용희 정창권
이강복

▲ 사회교육과

강영선 구자면 권영찬 김정훈
박영립 신문섭 안상현 이원중
이지민 전상진 조명순 최경미
허선희 최정례 조대근 김재홍
심재신 이상영 이태환 정일권
남정원 최재용

▲ 역사교육과

김민정 김아영 김지언 마체숙
박금수 신미나 최혜원 문주영
류은규 정향임 이종길 최병택
은정태 최상경 조남규 윤우현

▲ 지리교육과

강지윤 김주은 김현미 박동수
박정애 박진영 박현경 박현주
백경미 심은희 염정훈 이은정
정현주 최선영 흥일영 김은정
류연택 이은목 이현군 김종필

▲ 국민윤리교육과

김남준 김미정 김여진 김영미
박경희 박혜준 신은정 오은주
유정혜 윤영돈 이인정 이지영
임향초 한남수 허순용 강병구
이충근 김철순 안길찬 이유상

▲ 수학교육과

김성희 김인영 김주성 김현경

김화경 문영범 엄명희 유연주
유정석 이은영 이재혁 장미정
지은이 한대희 유진희 민세영
유영주 이경은 이성원 장현석
김영승 김창훈 이무신 이훈재
김성환 조승현

▲ 물리교육과

김유석 김혜정 김희경 박은주
박재석 백인석 송진동 오을식
이병관 이승원 임영옥 장현기
최일호 최준규 황경수 남궁복
박민석 엄대진 이봉우 전상준
황성원 박종웅 김인성 이병화
이경화 김기혁

▲ 화학교육과

김건성 김대균 김명재 김필석
김형욱 김혜경 도종수 박경남
박수연 박천웅 서정욱 송재규
윤희숙 이경화 이신정 장도영
최대승 최선영 최용남 정용규
문종건 반승환 정일호 김종찬

▲ 생물교육과

강경미 권정운 김정선 김수경
김인순 김현명 김현준 목정희
박영우 서성진 오현덕 윤신선
이기순 이순기 장미라 정용필
정유화 허경선 이창권 오지연
조돈용 최금숙 황현식 조현재

▲ 지구과학교육과

고미정 김세연 김숙영 김혜영
박성미 박소희 신하얀 윤옥교
이경희 이정림 이정은 정특실
조명아 김미정 채영우 강민정
최덕선 김연귀 임영권 한석운

▲ 체육교육과

강민수 강민원 권오진 김광환
김성동 김숙희 김종규 김주일
김창훈 김형숙 노진희 박노용
박보현 박상도 박성식 박순성
박영식 박이정 박지은 박평식
심윤식 양진부 오자왕 위종진
이세한 이재혁 이정엽 이한준
이혁중 정구경 정근일 정재화
제애나 허영진 황현석 김남수
김학렬 박정준 한정원 김 학
김재현 남선민 박철웅 이규성
이병호 최창호 양승만 조동우
이은수 김용서

◇ 수의 과대학

▲ 수의학과

강신근 권영배 김병현 김봉희
김은형 김항래 김현일 박성민
박수진 서상호 양재만 유아선
윤소영 이정현 이희천 전기석
조태현 조현진 천두성 최준구
최현석 강상숙 정연권 최진규
김동희 김삼형 김신범 류승호
전형우 흥기옥 강익재 배근환
송시숙 이미경 이성진 전재남
정요찬 조성을 주영호 최보영
최지웅 이부성 이주명 최정록
김덕은

◇ 약학대학

▲ 제약학과

김선영 김은순 노은영 도영미
민향원 박철원 배내찬 서소영
서희정 송미령 송인숙 신미경
안희철 오한준 유지형 이재우
이종국 임두연 정경래 정원희
조은정 진영원 최선국 최수미
한은아 한희용 흥은영 황용연
김병학 김성태 김진관 심성화
정성훈 정순경 조태연 주 영
이영진 심상영 주대호 이수경

▲ 약학과

강시현 김광미 김민정 김성희
김영안 김은아 김종한 김종호
김혜경 박명하 박종윤 박혜란
박혜영 소동수 신동윤 신지은
양근혜 양서정 이동석 이무열

이준연 이효정 임경민 임은선
정소영 정재호 조은선 조희제
주상훈 하성희 한선영 홍종수
김영민 김희화 백경민 고영탁
신지현 최봉규

◇ 음악대학

▲ 성악과

김영희 김유경 김유성 김재일
김지혜 백준영 엄은실 용정희
유동직 이예리 이정아 이후석
임소연 전유진 전혜린 탁정수
한윤정 황성숙 김지수 이명국
이령권 정재우 박용민 윤상준
이동숙 김기봉

▲ 작곡과

김승립 김영아 김정연 박현수
신혜경 오연미 이정수 장지혜
오경민 이 환 유일한 윤태정
김준성 정순도 홍성구 김진현
남언정 박윤경 박지영 손민정

▲ 보컬과

이수홍 송화숙 광상엽 김수미
박희명

▲ 기악과

강유정 김나영 김성희 김정은
김현주 박수연 박정희 신윤원
유재일 이미은 이선민 이성주
이수진 이수희 이은하 이재진
이정연 이진아 전정혜 정서연
정선인 조운경 최운경 최은영
최은진 흥영화 김수진 꽈이정
김난아 김남정 김선민 김수진
김은식 김은호 김주영 김희정
도진주 박영민 배기정 배호진
성소현 송하정 안지현 원보연
이미연 이승윤 이희정 정유미
정지선 조성은 함지민 김재신
김형찬 노정선 박민아 박승언
박춘원 백윤경 양호정 오유선
조윤신 최경일 김지언 남혜정
장은영 최성심 김영선 이석준
권광수 기영호 김형준 편무영
장에스터

▲ 국악과

강민정 김선림 김신희 김은영
김태희 김형선 박관선 박선희
박성아 이수용 이영은 이영주
이주은 임혜정 정혜임 정효성
조경선 최영재 하가영 허지영
김미향 최 인 강문봉

◇ 의과대학

▲ 의학과

강무형 명승권 강경복 강동우
강석범 강윤희 강현은 고경호
기현균 김강모 김경아 김광기
김대진 김명준 김보경 김성원
김성혜 김유경 김의석 김재현
김정준 김진삼 김창훈 김태욱
김태현 김한철 김현곤 김효열
김희오 남혜원 노지훈 모지훈
문승현 문준식 문진수 문 해
민태훈 박건우 박관진 박동희
박석범 박성근 박성신 박성제
박영제 박원찬 박일찬 박종무
박진식 손영제 송영복 송원석
송호준 신기철 신재훈 신형익
안병선 양민석 양재석 양지혁
염재호 오수영 유건희 유서윤
유원희 유진호 유한익 윤창진
윤호일 이경철 이광혁 이규창
이경희 이경희 이동엽 이민로
이상민 이상훈 이석준 이성주
이소영 이승배 이원복 이은정
이의영 이재협 이재호 이종석
이종열 이준영 이철중 이치규
이태희 이현주 이 활 임강은
임경실 임대정 임수영 임영신
임홍국 장두열 장병찬 장삼열
장성은 장 영 장윤석 전연숙
정구일 정승준 정용철 정인경
정재석 정재윤 정지혁 정철우

▲ 의과대학

정필록 제환준 조재현 조현철
조희승 지의규 차주희 채수옥
최낙진 최민규 최수희 최승은
최승호 최준영 최준용 최창원
최희준 하승룡 하정훈 한광호
허용준 허창훈 홍준석 황보빈
강우대 허욱강 원준혁 조익준
김지현 성환태 산정환 이주남
장인경 문정빈 조영호 김순남
임정구 석 웅 황태규 안종성
김윤철 박찬각 강길원 부일용
고석윤 김석기 김석원 김우정
김정훈 김지훈 박준완 박창규
서영주 성승기 신동근 신상도
안창희 이인식 이진호 장종범
정유석 조주연 최용준 최원준
홍석호 김용희 이장호 박현규
윤영국 이대원 홍성출 강신욱
성낙윤 강성구 한윤주 송채경

정필록 제환준 조재현 조현철
조희승 지의규 차주희 채수옥
최낙진 최민규 최수희 최승은
최승호 최준영 최준용 최창원
최희준 하승룡 하정훈 한광호
허용준 허창훈 홍준석 황보빈
강우대 허욱강 원준혁 조익준
김지현 성환태 산정환 이주남
장인경 문정빈 조영호 김순남
임정구 석 웅 황태규 안종성
김윤철 박찬각 강길원 부일용
고석윤 김석기 김석원 김우정
김정훈 김지훈 박준완 박창규
서영주 성승기 신동근 신상도
안창희 이인식 이진호 장종범
정유석 조주연 최용준 최원준
홍석호 김용희 이장호 박현규
윤영국 이대원 홍성출 강신욱
성낙윤 강성구 한윤주 송채경

◇ 간호대학

▲ 간호학과

강현주 고남경 곽은주 권은정
김선영 김선호 김수연 김윤경
김윤정 김은영 김은주 김정은
김지영 김 진 김홍수 남은진
도진영 박정수 박정영 박주현
박지영 박향정 변은효 손인숙
심유미 양입옥 양주아 윤미라
이동홍 이순교 이은희 이정희
이진경 이화정 장은정 장희경
전송희 전희경 정보경 정현진
조성숙 지윤정 최경원 최숙자
최윤경 최윤진 최은경 최은하
최정실 최화실 하영신 한영순
홍현숙 김선애 김 향 신윤정
심미랑 심미선 안정아 오경숙
이미숙 이윤정 이주희 임복순
장민경 최정실 최종혁 공은희
최경순 이윤주 오은숙

◇ 치과대학

▲ 치의학과

류성호 고현정 권애리 권오완
권창석 김 경 김경수 김기남
김명숙 김문기 김미연 김수곤
김연호 김영재 김영호 김용희
김은우 김정은 김현종 남석우
남윤우 문세기 박래정 박수현
박원규 박은진 박지훈 배성빈
서현주 송노현 신동원 신성수
신용길 신재호 신지철 안성희
안정연 안형모 양승숙 염도섭
유성열 유영주 윤방원 윤진아
윤필영 이관우 이동경 이병문
이상민 이상빈 이상엽 이성혁
이신원 이원호 이윤종 이정택
이종혁 이창우 이 헌 이현철
장성원 장용득 전이주 정기영
정상일 정우진 정준민 조인식
조한빈 차준석 최미라 최시현
최은아 최은정 최정한 최정호
하영복 하태현 한송이 흥기용
홍종락 황성진 황훈정 강혜경
이상진 이원재 허수복 노경수
명 훈 서창한 엄기정 이정남
정 승 정태욱 진희관 원혜신
최기정 김금령

석사

◇ 문학

▲ 국어국문학과

장경현 최지숙 김건우 박기영
석주연 이선웅 정인호 최현재
하희정 황선엽

▲ 중어중문학과

박소현 송용석 정향재
▲ 영어영문학과
강성복 이시영 이정수 김미옥
정계순 이원주 유선우

▲ 불어불문학과

류광애 이은주 정지용 도윤정
오정민

▲ 독어독문학과

전승일 정향균 신지영 조영준
강기동 박성룡 정현규 최은아
▲ 노어노문학과
정홍현 김윤영 이분영

▲ 서어서문학과

임주인

▲ 언어학과

최혜원 함애리 김윤신 김정원
박치원 전순환

▲ 국사학과

심재우 허 수 조이현 이민웅
임대식

▲ 동양사학과

이윤석

▲ 서양사학과

구민정 이계현 윤은주

▲ 철학과

안환기 이연호 강성훈 박기순
김재인 김준결 김준성

▲ 종교학과

김송일 강은애 옥경호 이지나
김일권

▲ 미학과

서현선 유지희 권혁성 이윤영
서원주 최진희

▲ 고고미술사학과

박경립 박수현 박재형 박형근
송은호 심민경 안종현 윤여강
이종룡 정태천 조성재 조영탁
최원석 왕기용 강윤수 곽재근
구영호 구자경 구자일 권경수
권오준 김남곤 김사라 김상욱
김선옥 김수경 김영부 김영현
김용국 김은철 김응주 김이경
김정삼 김정희 김준환 김충현
나상호 박상은 박원희 박종현
박형진 박효익 박효일 백성곤
심수아 양영배 양우식 왕성환
윤종배 이덕훈 이동선 이상현
이성열 이수철 이승주 이승훈
이정복 이종명 이진표 이진환
임근석 임원규 장성규 장우진
전종근 전종배 정소현 정태화
조성민 조재웅 조준형 조태영
채준 최규완 최동운 최승호
최원영 하지원 하형석 한수일
현봉수

◇ 법학

▲법학과

김지영 김한수 이진만 한동수
강경석 박성수 이희영 김동완
서석환 윤승은 조기룡 한상훈
연광석 오정진 이재민 전원열
길경진 신창훈 윤신승

◇ 이학

▲수학과

김영득 김이식 박봉주 박홍배
변응수 윤미 임대성 주제식
진선숙 편도산 권기운 남현수
노경하 박성호 박춘재 박태준
윤종국 이동근 이준형 전재영
정경훈 정배은 조진우 최윤선
최윤철 팽성훈 하태영
▲계산통계학과
황순우 선은두 강기훈 김대환
김율태 김찬형 류이경 박지철
박진영 서근주 서봉원 신우창
이상환 임재진 정민규 정예원
정재현 조태희 차성훈 최용석
강위창 김혜주 나성룡 송성주
송종우 안윤희 이강현 이민수
이항석 장완용 주민정 진서용
차지환 최혜미 함현정
▲물리학과
김재옥 신유철 이기준 이동주
이민호 최진호 고훈 구지영
권용환 김경하 김도현 김상구
김원동 김은경 김재영 김재완
김정남 김종원 남기준 노영철
류창현 문창록 박배호 박성용
박정영 박종혁 박준영 박지용
방현중 서용호 신현억 심성용
안재석 오수 우정원 유훈
이상기 이하연 이혁복 이희정
장원택 장준호 최영문 최영진
한승우 허태웅 홍현숙
▲천문학과
김철한 이상우 김기태 김민선
김상철 윤태삼 이총환 정해리
▲화학과
임종원 권원종 강윤호 권혁진
김길중 김남준 김명주 김상경
김선애 김성환 김호일 김호태
남미숙 문성주 박선철 박세연
박수민 박재현 박지호 박철민
박황서 박희정 서동수 송수연
신승진 신정숙 안태규 양성은
오세주 윤광수 윤재숙 이갑석
이관희 이상남 이성인 이영진
이재영 이재우 이재욱 정용주
정철근 정철승 조규봉 조성호
조윤성 주영길 차훈 최경신
최동석 최효영 홍상현 홍상연
황성호
▲생물학과
오상훈 고영원 고성호 권순일

김상의 김세규 김태훈 류훈
문정환 박경은 박상미 양종문
한연선 홍은미 홍정수 황보준권
▲분자생물학과
김경운 강신정 김나영 김민규
김양희 김유섭 김혜선 박일규
성인식 손호선 윤상우 이상구
이태학 정상호 조경상 차광호
채광수 한상열 허은미

▲미생물학과

이현우 고상혁 김영배 김하정
김형석 김형수 박동국 박상진
서원영 신동승 신정은 양두석
이영만 이용규 이용선 이재형
이현숙 임양인 장지욱 전경아
주우정 진호용 최제니 현옥섭

▲대기과학과

강지영 김시완 오현선 이은정
정영선

▲지질과학과

신경진 서상기 고동찬 정의진
현성필 조현무

▲해양학과

진재화 박철민 장찬주 조형래
구완서 남정호 박광석 최상화
홍선우 장원근

▲협동과정

박석정 구자현 김석관 이범

◇ 가정학

▲식품영양학과

고은미 김지원 박성연 서성희
신현주 안윤진 우지성 장재희
최윤주 최윤희 홍명근

▲의류학과

강석경 김은덕 김혜인 위수영
유희 이규혜 이유리 주정아
▲소비자아동학과

권자숙 김유경 김진희 김혜정
박미영 송명숙 유주연 윤미림
이옥경 이은영 최윤경

▲농가정학과

안옥선 김미경 김영옥 신미경
윤순덕 정희근

◇ 약학

▲약학과

강지영 이숙진 이장훈 이현주
홍선의 강건욱 강민희 강연심
강지아 공희진 김상겸 김성남
김종민 김지연 김지영 김홍재
김희진 남태규 노민수 류재련
명경민 문영심 문철 박상곤
박상호 박일호 박주현 방기훈
서동철 서명석 서성기 서재홍
안윤선 안혜진 양석주 여윤
여인립 오수영 오태권 우영아
우윤희 유준석 윤미영 이경
이우인 이은경 이주현 이진화
임형미 장정숙 정민희 조남진
조성은 조술연 진윤호 최리나
최석주 최영기 최원준 한승수

▲원자핵공학과

서재광 인용균 문석규 강경호
강보선 김강열 김덕규 김병수
김태영 김형진 어동진 오승민
윤형철 이덕중 이상돈 이현철
정의 최용석

▲자원공학과

김재용 구자훈 노정용 문선경
박진우 박희원 선희영 설순지
송재준 신성윤 연관희 윤성식
윤희천 이영주 이희석 장태현
전동진 정석진 조창수 조현구
허종석

▲전기공학과

권학수 김두영 김병호 김용욱
김준오 김태훈 노지준 박일훈
배유석 백창욱 서덕배 서장철
서정현 심형보 안동섭 양성동
양일동 어윤필 원종률 이종률
이진호 이학용 이현동 이홍석
장재형 전명철 전승익 정병태
조성민 조현준 천관호 최상철
황성모 황승환 덴지

▲전자공학과

이재성 김응수 유승주 강수원

김동현 김범진 김은철 김정민

김준환 김진석 김형함 류기현

문상준 문종석 민승재 박준배

서동현 서태원 서한교 성영철

소민석 신예식 안철용 옥광만

장일환 진만복 김비오 김진호
신윤호 고은수 길덕신 김근환
김상남 김영창 김유창 김종민
김형환 류명관 민경훈 박성준
박재훈 박종익 백승엽 서동우
서환석 손광석 안지수 엄경근
여태정 원영복 육점국 이승철
이영성 이재훈 이후산 전상현
조은진 차명환 최이식 최한호
하회성 함경훈

▲기계공학과

고호성 공호진 권봉주 김대희
김만호 김선경 김재윤 김재환
김중일 김한조 김형국 김형철
류종우 문승재 민영훈 배상수
신상철 신종철 오영철 유연상
유한성 이방원 이용규 임성택
정균철 정창훈 조성국 차민석
표경원 하경표 흥순삼 흥을청
황준영

▲기계설계학과

홍상규 김정일 이행복 정성훈
강민형 강정진 공대영 권순도
김규만 김기환 김대근 김석주
김성운 김일해김장수 김태욱
문형수 박동진 박신희 박재상
변정민 신동혁 신병관 오진용
위훈 유성우 윤상문 윤종락
이경훈 이동준 이루형 이상진
이석원 이준호 장죽진 조인행
최준호 한창운 허일규 확인하

▲산업공학과

송창원 심재수 강경훈 김남규
김남주 김재영 김창현 모정훈
문신명 박화섭 배준수 설동렬
송명근 송해구 원형준 이건호
이경석 이성우 이수현 이종호
이철 조계연 조봉제 최진민

▲섬유고분자공학과

김광성 김규석 김민선 김범준
김성은 김영민 김정선 김지영
박종렬 박준식 성하수 손성균
양재식 오명준 윤태원 이승오
이영미 전용군 정훈 조세현
최영대 최영백 최진우 홍보기
▲무기재료공학과

김상덕 장영일 김기준 김상학
김상훈 김서민 김재영 김재욱
김진용 김창영 김형철 박성대
서원준 신주철 심대용 양기덕
오광석 윤종태 윤철수 이광호
이태완 주성재 최웅 허철

▲원자핵공학과

서재광 인용균 문석규 강경호
강보선 김강열 김덕규 김병수
김태영 김형진 어동진 오승민
윤형철 이덕중 이상돈 이현철
정의 최용석

▲자원공학과

김재용 구자훈 노정용 문선경
박진우 박희원 선희영 설순지
송재준 신성윤 연관희 윤성식
윤희천 이영주 이희석 장태현
전동진 정석진 조창수 조현구
허종석

▲전기공학과

권학수 김두영 김병호 김용욱
김준오 김태훈 노지준 박일훈
배유석 백창욱 서덕배 서장철
서정현 심형보 안동섭 양성동
양일동 어윤필 원종률 이종률
이진호 이학용 이현동 이홍석
장재형 전명철 전승익 정병태
조성민 조현준 천관호 최상철
황성모 황승환 덴지

▲전자공학과

이재성 김응수 유승주 강수원

김동현 김범진 김은철 김정민

김준환 김진석 김형함 류기현

문상준 문종석 민승재 박준배

서동현 서태원 서한교 성영철

소민석 신예식 안철용 옥광만

윤광호 이경호 이기종 이동관
이원석 이재혁 임재용 임준호
임형준 장연호 전범기 정희목
조영권 홍석균 홍준모

▲조선해양공학과

박형돈 조민수 고재필 권혁
김연규 김진환 김판영 김현조
김형신 문재광 박건일 박경원
성홍근 안해성 유영민 유원선
윤규식 이명기 이심용 이영범
이우창 이장현 이재열 이재옥
임근태 최현구 최호웅 한상민

▲토목공학과

홍기증 김의현 강금석 강우영
김경택 김남일 김대근 김병철
김성일 김종희 김태녕 박시환
박원석 박재균 방성진 석정우
유대영 유정완 이길하 이장석
이종관 임종률 장인성 정한중
조근희 조남소 조재열 주부호
박한석 정상혁 이상협 강명구
공민근 김상일 노병덕 독고석
문진현 박선동 박영진 심교언
우승국 유경상 정경옥 정용식
정주호

▲항공우주공학과

김극섭 구본준 김도현 김성룡
김승한 김종선 김현수 김형주
김형진 김홍만 김희섭 남태우
백승훈 심정환 안세준 윤진원
이영호 전대근 조상범 조상연
조성영 채한길 최성진 최영식
최유진 황준석

▲화학공학과

최은석 고영규 과찬 김광규
김동현 김명현 김수구 김종은
김홍경 노형준 박석희 박찬익
배원 변달석 변영창 신궁균
신호우 안성모 양대창 양세우
양지현 유기윤 윤진규 이동호
이병우 이인구 이종진 이태형
이호택 정영광 정윤재 정진구
조준연 최범락 최희준 허영진
홍민명

▲제어계측공학과

김정기 안병교 구자성 김경백
김기백 김기홍 김남국 김영신
김영한 김형남 민승기 박규철
박정기 반준호 성상만 심학준
예종철 유수정 이석진 이종열
이종운 이필종 이현수 전명수
전형준 정승권 정영도 정치연
조성일 조세진 최원준 최인혁
한승우

▲컴퓨터공학과

홍삼표 권태경 김경원 김기섭
김성렬 김재철 김태웅 김형준
남형민 노동연 류경동 박주홍
배영현 송하주 심마로 안성준
오승택 옥명진 위선주 이대성
이민석 이상은 이용희 이화영
임성수 장구태 장우석 정수길
정수동 진영택 천성전 최유용
최종무 하태식 한기용 홍건영
황호영

▲협동과정

박해정 이동혁 이상우 류성호
오상현 조광명

◇ 농학

▲농학과

이광홍 김영가 남택수 박주현
송지숙 이정삼

▲원예학과

김윤정 서희숙 권혜진 김윤수
김일용 김지원 남궁용 허근영
홍승민 홍정아

▲산림자원학과

강미희 김선희 김현석 정우담

▲임산공학과

최준원 김이건 김평수 양한승

정준경 조동일

▲농화학과

김권수 신찬석 강승훈 김경연
김준규 민선식 이정걸 이태균
정대순 정윤희 최종근 관철호
▲식품공학과
김홍중 강대익 권순희 김묘정
김세철 김송이 김영완 김주환
박진병 신철수 어중혁 이승철
이우종 임경일 황선욱

▲동물자원과

강수현 강재구 김병준 김성우
김용환 김창현 민병록 박병호
송기덕 윤성준 이강세 이성진
장성식 최성의

▲천연섬유학과

박현우 윤영인 김윤조 김호산
최해경 현진호

▲농생물학과

김규량 신혁우 오연이 유재용
윤수경 이승돈 이한영 정은선
김정수 김명순 안정준 한경식
권규찬 이정우

▲농공학과

강문성 강준영 김대식 김성희
손영환 정영진 강석화 김승찬
김학진 김형욱 오길근 유동호
이정호

▲협동과정

송종태 유재웅 이지영 정혜진
진정훈 한경하

◇ 조경학

▲생태조경학과

김성만 김길영 김정연 신지훈
허윤정

나수경 이경희 이선아 김선희
김선희 윤관희 이지승 고현숙
김숙경 임현우 조계훈 이해선
박은아

▲ 사회교육과

유정화 김경완 손동빈 주은옥
강대현 김미리 임명희 정기문
김령이 김훈기 안재섭 이간용

▲ 국민윤리교육과

이미경 강방식 김정희 정탁준
▲ 수학교육과

신유신 김기춘 김성준 박애리
최정민

▲ 과학교육과

김은경 김수정 김희범 박상수
신인섭 심희정 이두표 이선복
정영민 최재원 강경석 신우호
이경희 임희준 정대홍 하은경
권혜경 김홍태 박미아 서정희
손진경 이정은 임수진 최기두
홍정립 송호장 두경택 정현주
김규중 민동주 시공희 여정필
이미정 정경자 차승훈

▲ 체육교육과

황인실 이문표 오연풍 고용주
김정하 김안나 김홍기 고은하
권영수 김소연 김신희 박경신
박종률 양성아 유지영 이영석
진정권 차주은 홍길동

▲ 농업교육학과

정우진 김호선 정윤경 박종락
김진호 김현수 조록환

▲ 협동과정

오 희 임연숙 신연숙 나태영
고은아 김정선 손승희 황지현
유지선

◇ 의학

▲ 의학과

김성호 김영균 노상권 박재현
오원일 이재호 이종훈 최성준
최인철 강운필 나명훈 권경배
김수진 김자성 김학수 박홍용
양문선 우경인 유순열 강세웅
강 훈 고광철 고태용 곽호신
구승엽 구진도 국명철 권기영
권용욱 김광례 김기정 김만호
김민선 김병기 김병모 김성범
김성훈 김송철 김영훈 김용민
김우진 김원동 김원석 김윤근
김윤상 김주한 김한수 김형곤
김혜경 김호성 나동규 류병직
박성근 박성은 박원경 박재원
박지영 박현민 박현준 백남종

서국희 서필원 송병호 안승철
안정혁 양미경 양성원 양성현
엄태현 오태근 온영근 유범희
유재학 유창식 윤대영 윤윤보
이건세 이근석 이영일 이용석
이원용 이유미 이정진 이종범
이중건 이지영 이진행 이태규
임명관 임소덕 임원일 장용주
정성수 정재훈 조경형 조규형
조남선 주권욱 주은정 주진형
최상경 최석태 최은영 최일주
최충곤 최형석 하범준 한규록
한분성 한부경 한윤수 한정아
함영길 허주령 흥종면 흥진주

◇ 간호학

▲ 간호학과

유은정 최은숙 김미희

◇ 치의학

▲ 치의학과

유홍열 박성원 박혜영 이창선
최수영 황경태 강민나 강보선
강상훈 강선주 국중기 김명혜
김미리 김병창 김정숙 김정숙
김준혜 김창현 김형우 문기호
박은주 박은주 박진성 송민석
송보경 양창호 염원석 오승은
윤재령 이문희 이미혜 이부규
이석홍 이선경 이승렬 이승민
이승표 이승호 이양진 이영혜
이우철 이 원 이은숙 이은영
임구영 장미경 전현철 정진우
정희선 조리라 최은영 최희영
한의학 허민석 황재웅

◇ 보건학

▲ 보건학과

백홍석 선우성 이명준 이성동
공방환 장병원 정혜선 변상필
이미령 김대성 김수영 손인자
장인순 전상임 황래홍 김성숙
김소정 김현주 문선희 배은영
이재희 임민경 정경아 정지연
조창익 홍영진 김명구 이지은
조경복 김진표 문상식 배정임
이선영 조장용

▲ 환경보건학과

최영철 김기석 김영규 안미희
박주영 이병설 하재남 김경란
박상은 박정임 서상옥 손미아
염미숙 이종은 임성훈 최경호

◇ 행정학

▲ 행정학과

남궁영 최기동 유창범 전영한

조동업 김명준 박일호 김관영
김정대 문환철 오중근 윤효식
이인혁 주시경 한동호 강민수
박재용 변종순 손창현 최재영
정승훈 김용환 박덕수 윤종인
권대철 정승은 박무익 권혁성
김주현 유법민 이미라 이상국
이승원 여한구 백승근 유명희
장금영 강태일 김상현 김재훈
김정렬 김진호 모성수 이재용
정대진 최찬오

◇ 도시계획학

▲ 환경계획학과

천일손 김기수 박신영 이은미
정소영 강신규 강호정 고승일
고재경 구희승 김강수 김대중
김민수 김주영 김화용 명수정
박강리 박미현 박현정 백승걸
송용권 신범식 이순실 이영성
임보은 전현옥 정병순 정지연
조혜진 최영수 최윤경 한재일

◇ 조경학

▲ 환경조경학과

민병철 이돈건 박미애 유재득
정숙영 강신경 김상욱 노재덕
목정훈 민복기 서미경 윤진희
이원아 이종우 전인수 조양숙
현영민

박 사

◇ 문학

이은애 서인석 이창현 이현우
최두석 왕쉬김 신지연 김유중
이승복 김외곤 이미순 이창숙
김미정 김종섭 최일의 서경희
김옥엽 서강목 이금희 김운진
심재중 이용철 이해방 최수철
손재순 임준서 김애련 고동호
김현권 최동주 성철재 권영국
송기호 김남운 채웅석 전덕재
배경한 김호연 김영원 이청규
정준영 박재목 조효래 이동인
이기욱 고재홍 이 양 김종해
신은주 윤찬영 김혜련 이병섭
배진한 김민정

◇ 철학

방 인 민찬홍 문성원 서유석
김인곤

◇ 정치학

김영순

◇ 경제학

서근우 조석곤 최신림 박홍진

이용우 송태섭 유일선

◇ 경영학

유광우 강낙중 오태현 이강성
김갑룡 조용민 고종권 권택호
류재준 박종원

◇ 이학

강은주 이진호 김현정 이재동
안귀임 김인철 김태균 배종민
백운철 강병도 최경호 김진흡

정현태 고석중 채수조 김승환
김항배 남창우 장상현 오세준
이원필 장은규 성환경 김봉섭

김영구 정태숙 김범태 김호현
송남웅 이상권 이중환 김동국
김만녕 민병찬 윤경섭 이기범

한양수 김노원 박남규 박철민
윤철환 이경준 이분열 이은경
최동욱 최상봉 문영호 김종욱
이규송 김재만 박력배 현상원

박세호 문경엽 설재홍 이기녕
신순천 유승신 윤진호 윤홍덕
이승록 최종선 이병규 이정현
박종복 고희재 진영근 배세진

신원철 강성현 장진호 조양기
최경숙

◇ 간호학

최경숙 김주현 이병숙 이은주
정면숙 김정은

◇ 공학

김진원 정유나 조대희 이경훈
이근욱 최정민 박철립 장준근
천태삼 이성희 최대건 정순욱
이상현 오명환 이형철 현규택
권재욱 양영철 이상협 이세형
조민영 최회진 민경익 백승철
양점식 국 건 김동섭 엄문광
이신표 이훈구 김국원 김영진
김영흡 김종현 김태용 최덕기
이동욱 배석훈 강진규 신기태
이해상 진희체 이명학 정영진
박찬동 이승구 석상일 김정환
손재현 유영성 유한호 정선태
정우현 임기학 백 민 김세준
손창일 이세준 서광덕 홍준희
김한수 이광호 이동영 이홍배
김창욱 이종화 강동욱 박재홍
임재열 박종일 안재경 양경호
이용만 이정배 박철휘 노경수
이종립 김성보 강영철 이경춘
박기순 노충근 정찬화 채희정
황인석 차형준 신동익 최재원
김유석 박홍원 황익호 강장익
송성호 이종석 장태무 방대욱
이민석 장경선 최창열 김한일

양재형 이봉규 박헬렌주

◇ 농학

서세정 구영본 김용율 윤호중
정연집 심규섭 이미경 김인호
안장우 김선기 우정희 이학교
이성실 한광진 전종영 박순식
김진택 홍순호

◇ 법학

백윤기 고호성 선정원 오종근
유영일 이상정 김은기 최윤희
오지철 제철웅 최정일 정영화

◇ 교육학

강경종 최유현 정득진 이종태
김병희 류방란 우용제 전세영
이환기 고인수 한순복 윤창식
유홍식 순명철 구정화 김왕근
임종화 차성섭 서강식 정은실
김진만 노석구 임동규 홍미영
김광희 성기훈 안양옥 김우성
박계순 성창훈 이영선 김정연
임규찬

◇ 수의학

배상호 서강문 성제경 신재호
안병우

◇ 약학

서역교 김용철 김지영 박신영
원현순 최성숙 양경미 정재훈
한용해 이선화 윤은정

◇ 의학

장무환 전성환 이동호 백희정
안형식 이나미 이상훈 박남훈
박웅양 배광범 백계형 조경재
김용재 신호철 이상익 이영탁
전제열 정영균 하규섭 함시영
고경석 김종훈 백승운 서준석
서홍관 성승용 이무송 이영아
이해욱 전종관 차승익 하태선
홍경수 김영기 김우중 김태규
박노현 박효순 오세오 윤보영
전범석 정만표 정원재 조정진
조종태 현인규

◇ 치의학

임정재 방선빈 김동균 김용진
박진규 이승연 임상훈 정경욱
전옥진 김기숙 김수용 김장식
김종하 박동성 백승진 송현철
윤정혜 이동호 조미숙 최남식

◇ 보건학

최병순 정해관

◇ 행정학

황영호 정국용 이상호 권오혁